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9
2021
VOL. 303

haninnewsinni@gmail.com

Korea Desk 021-2078-5877 http://www.kiwoom.co.id

KIWOOM SEKURITAS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내일에 투자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가 함께 합니다

SCAN THE QR CODE TO FOLLOW US ON SOCIAL MEDIA AND DOWNLOAD OUR KIWOOM HERO

OJK OTORITAS JASA KEUANGAN · IDX Indonesia Stock Exchange · kpei · ksei Indonesia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Treasury Tower 27F, District 8 Kawasan SCBD Lot 28,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Selatan 12190
T. 021-5010-5800 | Korea Desk 021-2078-5877

Larger than life.

STARIA 출시

천연가죽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7인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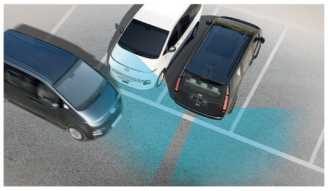
천연가죽 스위블링 시트 (9인승)

10.25인치 LCD 클러스터 및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듀얼 선루프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 전담팀 대응)
- 가격 및 기타 상세내용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참조

HYUNDAI

Call Center: 0 800 1 878 878 (Toll free 24 hours) **www.hyundai.com**

Hyundai Motors Indonesia | @hyundaimotorindonesia | Hyundai Motors Indonesia | @hyundaimotorid

최고의 기술력, 정밀성, 품질 향상과 최단기 납기, 생산성 향상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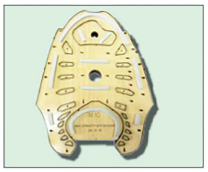
금 형

신발 금형 (IP, PHYLON, PU, 아웃솔, 사출)
일반사출 금형
다이케스팅 금형
주조 (알류미늄, 주강)
부식
코팅 (나노, 테프론, 세라믹, 분체)
핫나이프 (HOT KNIFE)

인젝션 플라스틱

발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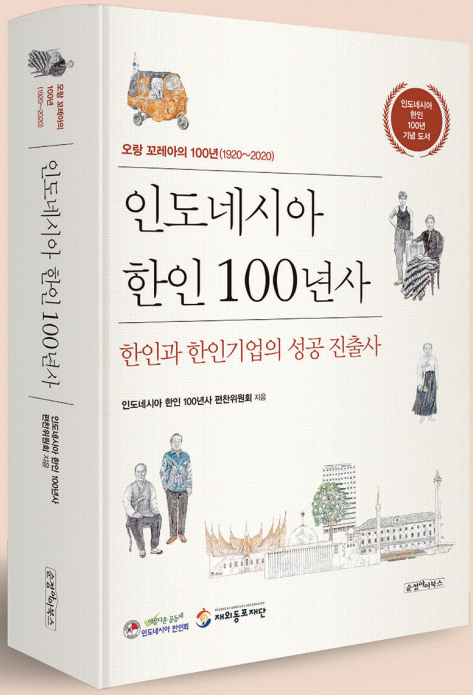
일반 발형
톰슨 발형
CNC 발형



PT. SINAR MASANDA INDUSTRI
Jl. Raya Serang KM 17,2, RT. 002 RW. 001, Kelurahan Bojong,
Kecamatan Cikupa, Kab. Tangerang - Banten 15710
Telp. 021-59411395 (Hunting) Fax. 021-59411399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 역사를 집대성한 책

★인도네시아 한인과 한인기업의 역사와 성공 이야기★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 기념 도서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위원회 지음
양장본 · 판형 163×235 쪽수 512

적도에서 펼쳐진 한인들의 치열한 삶과 도전의 역사! 열정 그리고 꿈!

• 인도네시아에 대한 오늘의 고민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역사 사용서 •
인도네시아의 성공적 진출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제시하다.

★ 인도네시아 한인기업 개척 도전사와 '산업별 한인기업 50년사(史)' 총망라
★ '오랑 꼬레아'가 인도네시아 땅에 새긴 특별한 삶의 현장 보고서

순정아이북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개인회원께는 <인도네시아한인100년사> 책자 요청시 무료로 드립니다.
연락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 1960 308 (지역에 따라 배송비 개인부담)

월간 한인뉴스 9 2021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contents

2021. 9. 통권 303호

8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현대차-LG엔솔 손잡고 동남아서 난공불락 일본차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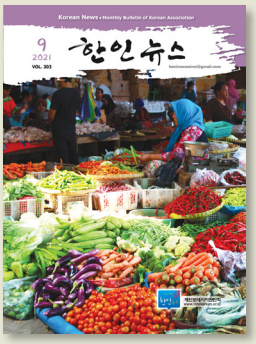
10

한인회,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의료구호 지원

12

한인회, 명지병원과 원격진료 MOU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표지사진: 박태순 (롬복한인회회장, 나루투어대표)

Ampenan 시장, Lombok, Nusa Tenggara Barat
일시 : 2021년 5월 13일
롬복의 린자니산 주변의 고산지대에서는 언제나 계절 채소들이 재배됩니다.

14 이코노미 인사이트 – Viva la Vida, 인생이여 (그래도) 만세! <황준규>

16 배동선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45 – 독재자의 길

20 월간 뉴스브리핑 <데일리인도네시아>

24 두 개의 시선 – 독립기념일을 수놓는 일 <헬른>

28 나 바 수 <민선희>

32 자카르타 맛집탐방 – POKENBIR <주윤지>

34 책이 답하다 4 – 인도네시아의 중국계 무슬림 <조연숙>

37 어서 와! 지금은 홈트할 시간 <정창훈>

40 PT. PRATAMA,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이웃같은 기업

42 '순다'의 역사적 발자취 <유은규>

45 5 관 5 색의 도서관에서 책캉스를 <김재이>

48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와양박물관 <조은아>

52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 배양육 <조웅희>

54 행복에세이 – 그때 그 골목길은 지금도 있을까 <최원현>

56 행복한 기업인 <김우재>

57 한인니문화연구원,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와 MOU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301) <이승민>

60 편집장 모니터 – 원만한 사람 <홍석영>

66 생활정보

"현대차-LG엔솔 손잡고 동남아서 난공불락 일본차 공략"

논설위원 신성철

1980년대 초 일본기업 소니(Sony)가 제조한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워크맨'을 허리에 차고 다니는 젊은이는 부러움의 눈길을 한눈에 받았다. 1990년 전후에 소니 텔레비전이 가정에 있었다면 그 집에 보물이었고 자랑이었다. 당시 일본은 전자,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세계 주요 제조업을 주름잡았다. 이후 일본은 '성공의 함정'에 빠져 급변하는 시장을 따라잡지 못했고 잃어버린 30년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에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은 발 빠르게 움직여 거대한 벽 일본업체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

일찌감치 1980년대부터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엔진과 트랜스미션 등 자동차 주요 부품생산의 밸류체인(Value Chain) 체제를 만들기 시작해, 동남아 국가들과 맺은 관세를 최적화해 놓은 상태인 만큼 이 지역에서 일본기업 외에는 다른 국가의 자동차 회사가 진출할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차는 인도네시아 자동차시장에서 95% 가량의 점유율을 보이는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육성해 제조업을 발전시키기를 열망했지만 고부가가치 기술을 전수하지 않는 일본과의 협업에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이런 와중에 민주화를 통한 제조업 발전을 이룩한 한국을 롤모델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2019년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을 계기로 현대차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일본차의 철옹성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외곽 찌까랑 지역 델타마스 공단에 완성차 공장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손잡고 인도네시아에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만들어 일본차 보다 한발 앞선 전기차 생산을 통해 동남아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와 LG엔솔이 합작한 인도네시아 공장은 양국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물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현대차와 LG엔솔의 첫 해외 합작법인은 일본차 브랜드의 아성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 확보하고, 그동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주력하는 바람에 전기차 생산에 뒤쳐진 일본차와 한판 승부를 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우리나라 재벌기업 현대차그룹과 LG그룹 간 협업 경영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 재벌기업 창업주 세대의 회장들은 치열한 경쟁 관계였으나, 최근 3세로 이어진 재벌기업 경영에 변화가 일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다. 정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물론 이재용 삼성부회장 등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과 LG엔솔의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투자는 양사 지분이 각각 50%씩으로 매우 끈끈한 관계를 보여준다.

현대차는 15억 달러(한화 약 1조8천억원)를 투자해 2019년 연말에 델타마스 공단에 연산 25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착공해 최근 시험생산을 시작했다. 내년 초 내연기관 승용차와 전기차 양산을 앞두고 있다. 이어 현대차그룹과 LG엔솔은 배터리셀 합작공장 설립을 위해 약 11억달러(한화 약 1조1천7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과 LG엔솔은 각종 법적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중으로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한 뒤 4분기에 합작공장 착공에 나서 202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배터리셀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양사의 합작법인 진출과 안착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역할도 적지 않다. 양국은 2019년 CEPA를 체결해 자동차는 물론 철강 제품 등 부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인도네시아 당국은 일정 기간 법인세와 합작공장 운영을 위한 각종 설비 ·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 강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매장량과 채굴량 모두 세계 1위로 원료 공급이 원활하다. 인도네시아는 정부 차원에서도 전기차 관련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아세안 시장을 넘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허브가 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초기에 현대차그룹과 LG엔솔의 인도네시아 합작투자는 시의적절하다. 전기차 부문에서 일본차 브랜드보다 한발 앞선 현대차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LG엔솔의 협력은 동남아 시장에서 전기차와 배터리셀 부문에서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한인회, 코로나19 동포 확진자를 위한 의료구호 지원

[COVID-19 구급키트 & 명지병원 온라인 원격상담 서비스]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박재한)는 코로나19 동포 확진자를 위한 전반적인 의료구호 지원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다. 산소공급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한인회에서 산소발생기를 지원하고, 원격 의료상담을 요청하는 동포에게는 대사관에서 조은내과 한인의사와 직접 연결해주는 방식 등으로 응급처지 및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며 중증으로의 전이를 최대한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한인사회 곳곳에서 이어지는 구호물품 나눔과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응원의 물결은 불안을 견디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포 확진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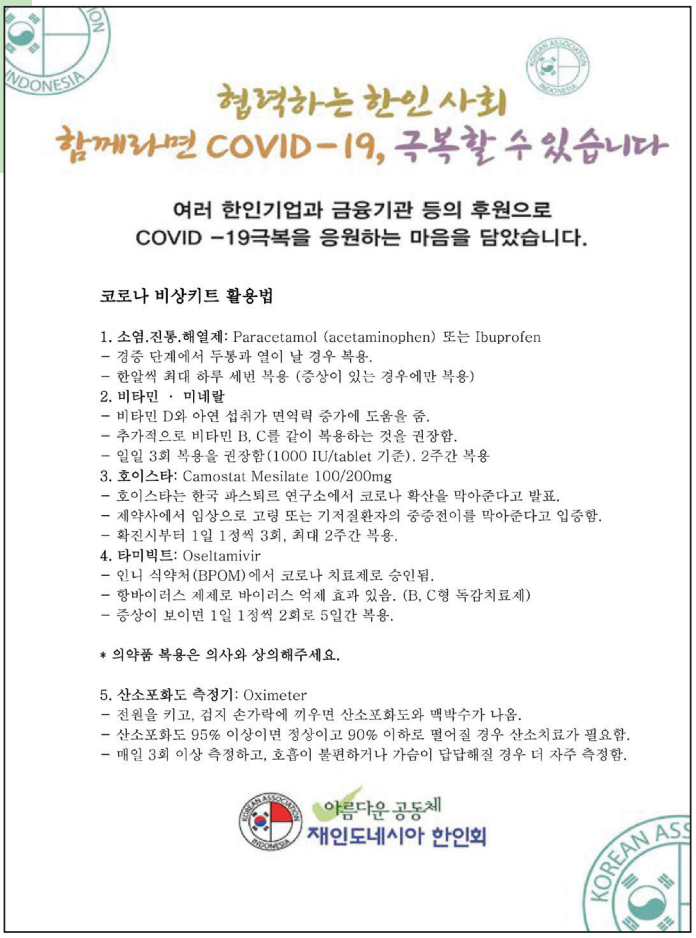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8월 5일부터는 '여러 한인기업, 한인단체, 금융기관, 제약회사, 개인사업자, 개인' 등 각계에서의 기부행렬 동참과 '대사관의 신속통관' 지원에 힘입어 코로나 극복 응원의 마음을 담은 'COVID-19 구급키트'를 현재 치료중인 동포 확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8월 4일,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간의 업무협약체결로 인니 거주 한인들에게 건강검진을 포함한 진료시설 서비스(한국방문시) 및 온라인 원격상담 서비스를 제공,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시범운영기간 중 원격진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코로나19 및 일반진료 등의 응급처방이 필요한 때에 우리 동포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도움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러 한인 기업과 금융기관, 단체, 개인 모두 함께 힘을 보태서 할 수 있는 지원이 확장되고 있어 감사할 뿐이다" 라고 말했다.

◆ 'COVID-19 구급키트' 지원

◆ 지원대상 : 대사관 및 한인회에 확진 신고한 동포 중 현재 치료중인 분
◆ 신청서류 : PCR 검사 양성확인서
◆ 신청방법 : 재인니한인회 카톡연결 → 양성확인서 제출/확인 → 확진자 성명/연락처/거주지 확인 → 수령방법 확인
※ 한인회 연락처 : 0812-1960-308(카톡 ID: Korasos)
◆ 수령방법 : 가족, 지인 등이 필요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지역한인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
※ 현재 지역한인회* 배송물량이 수일 지연될 수 있어, 도착 이전에는 재인니한인회에서 우편 발송 예정
(* 발리, 반둥, 바탐, 메단, 수까부미, 수라바야, 스마랑, 족자카르타, 즈파라, 땅그랑, 마카사르, 롬복, 칼리만탄, 찌까랑, 빨렘방)
◆ 주의사항 : 자세한 사용방법은 구급키트 내 설명서 참고, 전문의약품은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



협력하는 한인사회
함께라면 COVID-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한인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후원으로
COVID -19극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코로나 비상키트 활용법

1. **소염.진통.해열제**: Paracetamol (acetaminophen) 또는 Ibuprofen
- 경증 단계에서 두통과 열이 날 경우 복용.
- 한알씩 최대 하루 세번 복용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복용)

2. **비타민 · 미네랄**
- 비타민 D와 아연 섭취가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줌.
- 추가적으로 비타민 B, C를 같이 복용하는 것을 권장함.
- 일일 3회 복용을 권장함(1000 IU/tablet 기준). 2주간 복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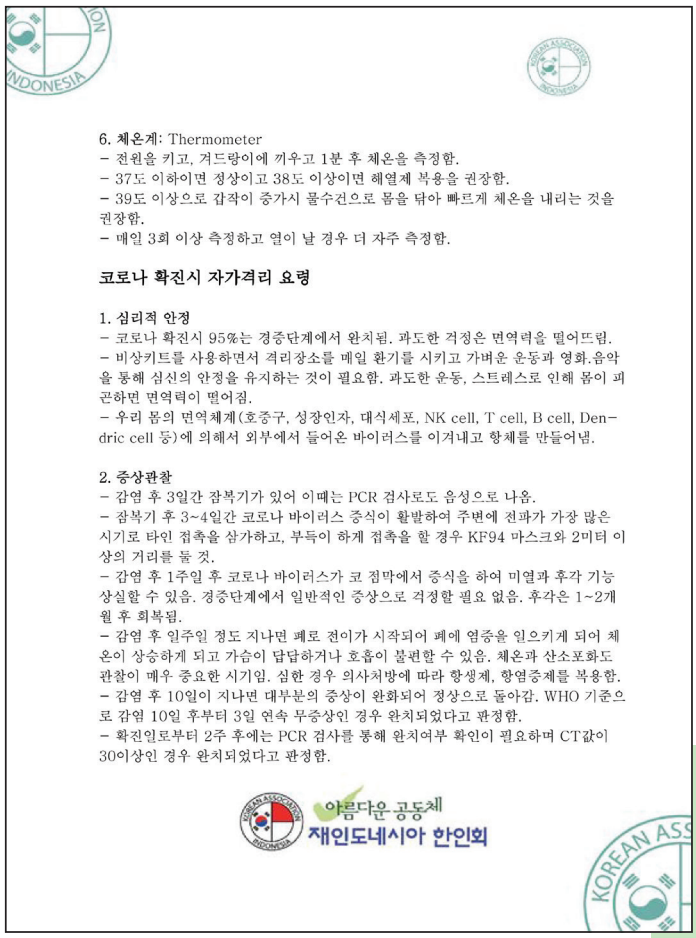
3. **호이스타**: Camostat Mesilate 100/200mg
- 호이스타는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준다고 발표.
- 제약사에서 임상으로 고령 또는 기저질환자의 중증전이를 막아준다고 입증함.
- 확진시부터 1일 1정씩 3회, 최대 2주간 복용.

4. **타미빅트**: Oseltamivir
- 인니 식약처(BPOM)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됨.
- 항바이러스 제제로 바이러스 억제 효과 있음. (B, C형 독감치료제)
- 증상이 보이면 1일 1정씩 2회로 5일간 복용.

*** 의약품 복용은 의사와 상의해주세요.**

5. **산소포화도 측정기**: Oximeter
- 진원을 키고, 검지 손가락에 끼우면 산소포화도와 맥박수가 나옴.
- 산소포화도 95% 이상이면 정상이고 9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산소치료가 필요함.
- 매일 3회 이상 측정하고, 호흡이 불편하거나 가슴이 답답해질 경우 더 자주 측정함.

아름다운 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6. **체온계**: Thermometer
- 전원을 키고, 겨드랑이에 끼우고 1분 후 체온을 측정함.
- 37도 이하이면 정상이고 38도 이상이면 해열제 복용을 권장함.
- 39도 이상으로 갑작이 증가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빠르게 체온을 내리는 것을 권장함.
- 매일 3회 이상 측정하고 열이 날 경우 더 자주 측정함.

코로나 확진시 자가격리 요령

1. **심리적 안정**
- 코로나 확진시 95%는 경증단계에서 완치됨. 과도한 걱정은 면역력을 떨어뜨림.
- 비상키트를 사용하면서 격리장소를 매일 환기를 시키고 가벼운 운동과 영화.음악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과도한 운동,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짐.
- 우리 몸의 면역체계(호중구, 성장인자, 대식세포, NK cell, T cell, B cell, Dendric cell 등)에 의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항체를 만들어냄.

2. **증상관찰**
- 감염 후 3일간 잠복기가 있어 이때는 PCR 검사로도 음성으로 나옴.
- 잠복기 후 3~4일간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하여 주변에 전파가 가장 많은 시기로 타인 접촉을 삼가하고, 부득이 하게 접촉을 할 경우 KF94 마스크와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 감염 후 1주일 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 점막에서 증식을 하여 미열과 후각 기능 상실할 수 있음. 경증단계에서 일반적인 증상으로 걱정할 필요 없음. 후각은 1~2개월 후 회복됨.
- 감염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폐로 전이가 시작되어 폐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어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음. 체온과 산소포화도 관찰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 심한 경우 의사처방에 따라 항생제, 항염증제를 복용함.
- 감염 후 10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증상이 완화되어 정상으로 돌아감. WHO 기준으로 감염 10일 후부터 3일 연속 무증상인 경우 완치되었다고 판정함.
- 확진일로부터 2주 후에는 PCR 검사를 통해 완치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CT값이 30이상인 경우 완치되었다고 판정함.

아름다운 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 '명지병원 온라인 원격상담 서비스' 이용

◆ 이용방법 : 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폰에서 'MJ Virtual' 앱 다운로드 → 진료 선택하기(월: 심장내과/화~금: 가정의학과) → 상담일자 선택 → 원하는 전문의 의료상담 예약 → 문진표 작성 → 의료상담 진행(채팅 후 화상)

※ 앱 설치 및 궁금한 사항 : 카카오톡 채널 "명지병원 버추얼케어센터"로 1:1 문의

※ 채널 주소 : http://pf.kakao.com/_XWqrK

◆ 상담시간 : 평일 08:30~17:30(한국 시간 기준)

◆ 진료내용 : 코로나19 및 일반진료

※ 의료상담만 가능하며 약품 처방 등은 불가(다만, 환자가 사용중인 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등 자문 가능)

◆ 진료비용 : 시범 운영기간 중 무료(동 기간 종료 후 비용 청구 가능)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명지병원(한국) 과 한인 코로나19 및 건강관리 지원

4일, 명지병원과 MJ버추얼케어센터를 통한 원격진료 협약체결

8월 4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박재한)는 명지병원과 온라인 원격진료상담을 포함하는 '지정병원 서비스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니 거주 한인동포들은 MJ버추얼 케어센터의 전용모바일 앱을 플랫폼으로 스마트 기기나 각종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원격진료와 건강상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모국방문시 명지병원에서의 대면 진료와 종합 건강진단센터에서의 건강검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한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이왕준 이사장은 "에어앰뷸런스 등을 통해 명지병원에 내원하는 중증의 해외한인동포 중 인도네시아교민이 가장 많다"며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인도네시아 경증의 확진자들이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아무런 의료지원 없이 생활하다가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이번 협약이 신속한 진단과 처치로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적절한 의료혜택을 제 때 받지 못하고 있는 교민들이 만성질환 진료를 비롯한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원격 진료상담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모국 방문시 대면진료와 건강검진 등으로 연계하는 수준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MJ버추얼케어센터의 해외동포 대상 토탈 라이프헬스케어 서비스는 기존의 미국 애틀란타와 하와이 한인회, 과테말라한인회 등 미주지역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이어 이번 협약으로 아시아 해외동포들에게 확대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박재한회장과 손한평 수석부회장, 김종헌 수석부회장, 최인실 사무국장이 명지병원에서는 이왕준 이사장과 김세철 의료원장, 김진구병원장, 조동영 교수 등이 참석했다.

도전하니 청춘이다

따뜻한 감성으로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할
한인뉴스 학생기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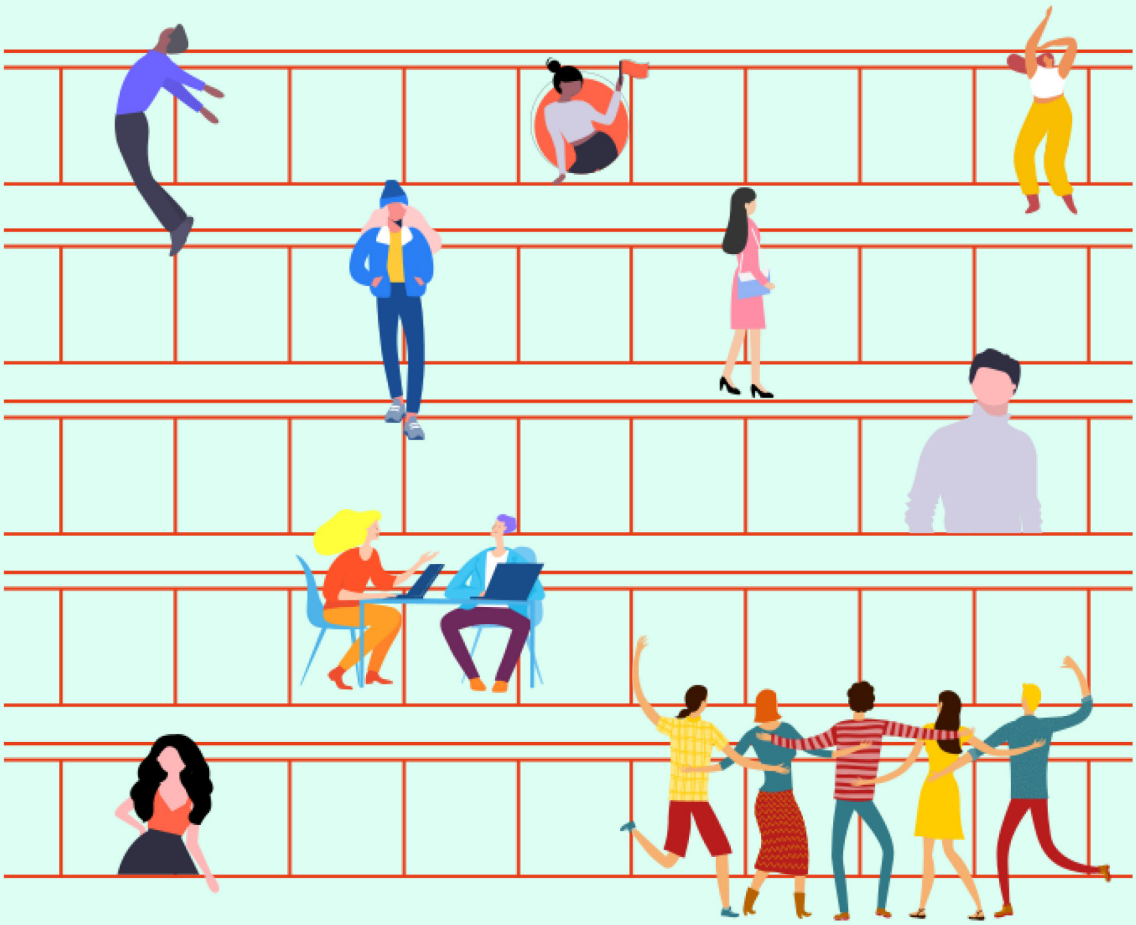
모집대상
글쓰기에 관심있는 인도네시아거주 고등학생

모집기간
2021년 6월 1일~ 9월 30일

제출서류
관심분야 기사 혹은 에세이(A4 한두 장 분량),
학생증사본

제출방법
간단한 프로필과 관련 서류를
haninnewsinni@gmail.com으로 송부

접수 및 문의
한인뉴스 홍석영 편집장 0818 711246



Viva la Vida, 인생이여~ (그래도) 만세!

- 영웅본색, 비관주의자를 위한 낙관주의 수업

글: 황준규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본부장)

"Viva la Vida" 필자가 좋아하는 밴드 'Coldplay'가 2008년 발표한 네번째 앨범 타이틀 곡이다. (스페인어로) "인생이여 만세"라는 노래 타이틀과 달리 가사는 세상을 지배하다 하루아침에 혁명으로 내쳐진 절대군주가 1인칭 화법으로 권력과 인생의 무상함을 풀어간다. 채워지지 않을 권력욕을 쫓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노랫속 주인공의 서사는 권력이 살아있던 찰나의 순간에는 영웅담일 수도 있겠으나 역사에는 재앙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앨범 재킷 또한 들라크루아가 프랑스의 7월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사용하여 가사가 주는 메시지를 극대화했다. 그러나 노래 가사의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연상된 인물은 프랑스의 루이16세나 샤를10세가 아닌 루마니아의 독재자 챠우셰스쿠였다. 프랑스 혁명은 단지 '책을 통해서만 접한 역사'이나, (김일성을 능가하는) 독재자로 군림하다 민중봉기로 하루아침에 사형을 언도 받고 총살로 생을 마감했던 루마니아 절대권력자의 몰락은 그 사형장면이 전세계로 생중계되는 등 '직접 목격한 역사'인 만큼 역사책 속의 혁명 스토리에 비할 게 아니었다. 그리고 지난 8월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즈음 가족들과 넷플릭스로 인니영화 '독립영웅 수카르노'를 시청하였는데 수카르노는 민중의 마음을 울리는 연설로 민중들을 열광시키며 결국 인도네시아의 건국 영웅까지 된다. 그러고 보면 세상을 뒤흔든 혁명가 또는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대중을 사로잡는 연설에 큰 재주를 가진 자들이었다. 실제 어떤 조직, 그룹이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구술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주어진 상황과 해결방안을 언어로 풀어 낼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여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부여하기 때문인데 그 시선에 본인의 가치관 또한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끄러운 일화를 소개하자면 사회 초년시절 회사 내 한 임원분의 스피치에 크게 감동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 회사 근처에 전직 대통령에게 연설 스킬을 가르친 이력이 있는 분이 운영한다는 스피치 학원의 소문을 듣고는 찾아가 등록을 하게 된다. 어릴 적 부끄러움을 많이 타던 성격을 걱정하신 부모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끝내 웅변학원을 거부하였으나 사회에 나와 스피치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맘먹고 거액을 들여 등록한 그 학원은 만성적인 의지 부족과 바빠진 회사일이 더해져 몇번의 수강을 끝으로 결국 별소득없이 마무리 되었다.

사실 모두가 한번씩은 리더가 되는 꿈을 갖는다. 그러나 사십대 중반이 된 지금의 현실은,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걱정으로 노후 계획부터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젊어서 돈을 모은 후, 나이 들어 그 돈으로 살겠다는 노후계획은 이미 옛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한 듯 실제로,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본시장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 개인투자자의 투자 열풍을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시작된 작년 2분기 당시, 본 칼럼을 통해 당시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오르는 원인을 들여다 본 적이 있다. 과거에는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산가격이 내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작년 감염병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와중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바이러스 증식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통화량을 늘렸으며 특히, 미국의 Fed가 휘둘렀던 도깨비 방망이는 기축통화의 마술같은 힘을 일깨워 주는 동시에 부지런히 일해서 수출로 지탱하는 우리나라 경제기반에 자괴감마저 안겨 주었다. 기존 유래를 찾기 힘든 전세계 국가들의 앞다툰 돈풀기는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당시 칼럼에서 비유한 것처럼) 마치 진통제인 '몰핀(morphine)' 처럼 위기대응을 넘어 자산시장의 과열을 초래하는 '펌핑' 효과 까지 이끌어 낸 것이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풀린 상황에다 저금리 · 디지털로 대변되는 시대에 투자자산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채 '나혼자만 뒤쳐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공포심으로 뒤늦게 묻지마 투자 열풍에 뛰어들면 안그래도 불확실한 미래에 더 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여하튼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적극적인 노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은 바쁜 현업에 치여 쏟아지는 일을 해결 하기조차 벅찰 때가 많다. 사실 해외근무는 한국과는 다르게 업무 범위가 크고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사고가 터지기 일쑤라 작은 일도 허투루 넘길 수가 없다. 때문에 이따금 큰틀에서의 업무 방향성을 잃는가 하면 궁극적인 목표를 잊은채 눈앞에 닥친 여러 일들을 치우느라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에 자괴감을 느낄 때도 많다. 어찌보면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에 의한 '코비드블루' 가 원인일 수도 있겠으나 건강, 노후, 재테크, 육아 고민과 함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피로감과 우울감에 빠져들 때가 많았다. 이렇게 슬럼프에 허우적 대고 있던 즈음의 주말 오후, 큰 아이가 읽고 있던 책에서 우연히 읽게된 일화에 큰 위안을 받은 적이 있다. 요약하면 프랑스 시인 샤를페기가 샤르트르 지역의 길가에서 망치로 바위를 깨뜨리고 있는 세 남자를 차례로 만나게 되었는데 고통스러운 표정의 첫번째 사내가 말하는 본인의 일은 '바위를 깨뜨리는 막노동' 이었다. 길을 좀 더 지나쳐 만난 다소 차분해 보이는 두번째 남자가 밝힌 본인의 일은 비록 힘들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는 보람된 노동' 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 함박웃음을 지으며 열정적으로 바위를 내려치던 세번째 남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일은 '대성당을 짓는 일' 이었다. 작게 보면 단순한 망치질일 수 있으나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는 보람된 일이며, 더 나아가 대성당을 지어나가는 숭고한 과정일 수 있다는 이 일화는 (누군가는 청소년들이 읽는 흔한 자기계발서의 뻔한 컨텐츠라고 일축할 수 도 있겠으나) 일과 삶에 대한 원동력을 잃고 고민에 빠져있던 필자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자신의 하고 있은 일에 대한 가치는 타인의 눈높이가 아닌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으며 이는 삶의 태도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해보았다. 이루지 못한 목표를 곱씹으며 살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더 집중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낙관론자적 삶의 태도에 가까워지고자 노력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PPKM(사회활동제한조치)의 하루를 또 다시 마무리했다.

독재자의 길

수까르노의 공산권 및 제3세계 외교: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네루, 호치민, 김일성, 카스트로

지난 호에 이어

한편 정부군은 1959년 대대적인 병력을 동원한 '인간그물작전'으로 다룰이슬람군을 포위해 퇴로와 병참선을 끊고 우세한 화력을 과시하면서 게릴라들의 항복을 종용했다. 그 결과 서부자바 교외 지역을 단단히 틀어쥐고 있던 강력한 반군거점들을 성공적으로 함락시킬 수 있었다. 까르또수위르요는 1961년 정부와의 전면전을 새삼 선포하고 일반인들까지 테러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으며 최후의 발악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추종자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 크게 위축되었고 1962년 6월엔 가룻 인근 게베르산의 은신처에서 마침내 정부군에게 체포되었다.

체념한 까르또수위르요는 모든 추종자들에게 항복할 것을 명령했고 1962년 8월 찌러마이산에서 활동하던 마지막 게릴라들이 투항하면서 서부자바의 다룰이슬람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까르또수위르요는 자카르타로 이송되어 군사법정에 섰다가 반란과 대통령 암살미수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1962년 9월 5일 총살당했다. 오랜 투쟁과 야전생활로 이미 백발노인이 되어버린 까르또수위르요였지만 13년간 다룰이슬람 반군을 이끌었던 그의 저력을 두려워한 중앙정부가 재판과 처형을 이례적으로 매우 신속히 진행했다는 인상이 강하다.

이렇게 조직이 와해된 후에도 잔당들은 1970년대와 1980년까지도 '꼬만도 지하드'라는 이

슬람 과격집단의 테러가 종종 벌어졌는데 모두 다룰이슬람 출신들의 소행이었다

나사콤 체제 출범

그동안 중앙정부의 골머리를 썩였던 반란군들을 이렇게 모두 진압하자 이번엔 그 과정에서 급격히 세력을 키운 군이 수까르노에게 부담이 되었다. 절대권력을 지향하고 있던 수까르노는 비록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넘볼 정도로 세가 커지는 것을 그냥 두고볼 수 없었다. 그래서 박정희가 중정부장과 경호실장을 서로 견제시켰던 것처럼 수까르노 역시 군을 견제하려 했고 그러기 위한 상대세력으로서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가 1960년 정부의 이념적 기반으로서 도입한 나사콤(Nas-A-Kom)체제에서 수까르노의 그러한 견제의지를 읽을 수 있다. 나사콤은 인도네시아 사회에 내재되어 있다고 믿어지는 세 가지 사상적 경향, 즉 민족주의(Nasionalisme), 종교(Agama), 공산주의(Komunisme)를 하나의 체제로 묶은 것이었다. 수까르노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공산주의자들을 입각시켰고 당시 PKI 당수 디파 누산따라 아이딧과 견고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수까르노는 인도네시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1962년 아시안게임을 자카르타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 아시안게임을 소화하기 위해 10만석 규모의 붕까르노 스타디움을 포함한 스나얀 스포츠컴플렉스와 같은 많은 체육시설들이 건설되었다.

하지만 배후에는 정치적 알력도 존재해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과 타이완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금지하면서 국제적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스라엘을 비토한 것은 인도네시아의 우방인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했던 것이었고 타이완을 거부한 것은 단일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때문이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배제정책에 규제를 가했고 이에 반발한 수까르노는 올림픽 경기에 대항해 가네포(신흥강국대회: GANEFO)라 부르는 '비제국주의자들의 국제경기'를 따로 조직해 1963년 51개국 2,700명의 선수들이 참석한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에선 국격상승이라 찬양했지만, 하지 않아도 될 일에 국가예산을 물쓰듯 퍼부으며 자존심만 고취시키는 이러한 행동은 서구열강과 대립각을 세우는 수까르노의 몽니이자 꼴통인증이기도 했다.

아시안 게임이 열린 붕까르노 스타디움(좌), HI 로터리에 세워진 '환영한다'동상 (Patung Selamat Datang)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 CONEFO건물, 호텔인도네시아, 이스틱랄사원, 국가기념탑(모나스)

인도네시아 국격향상 노력의 일환으로 수까르노는 국가기념탑(MONAS), 자카르타의 이스틱랄사원, CONEFO 빌딩(현재 국회의사당 건물), 인도네시아 호텔, 사리나 쇼핑센터 등 기념비적 랜드마크들의 건축을 명해 자카르타를 과거 식민지시대의 잔재에서 새로운 근대도시로 탈바꿈시키려 했다. 현대적인 탐린거리와 수디르만 거리, 가똣 수브로또 거리 등도 이 시절 설계되어 건축된 것들이다.

196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반군들을 진압했고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을 높이면서 경제적 발전일로에 들어서고 있었다. 중앙정부는 당시 인도네시아 육지면적 전부를 합친 것과 맞먹는 면적의 네덜란드령 서부파푸아뉴기니의 합병을 시도했고 말레이시아연방의 확장을 방해하면서 동남아의 맹주는 물론 아시아와 제3세계의 맹주가 되기 위해 도약하려 하고 있었다.

비동맹운동

수까르노의 대내적 권위가 굳건히 세워지자 그는 이제 국제무대를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는 반제국주의를 기반으로 한 일련의 공격적이고도 강제적인 정책들을 실행해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 했는데 이러한 반제국주의, 반서방 정책들은 곧잘 다른 나라들과 대결양상으로 치닫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국제갈등은 다양한 인종과 분파들이 공존하는 인도네시아의 단합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외교정책 전면에 나선 인물이 수반드리오 외무장관이었다.

수반드리오는 서부자바 말랑 출신으로 의학을 공부하던 중 독립운동에 가담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엔 항일저항군에서 의료실습을 했다. 1945년 이후 그는 수까르노의 충실한 지지자가 되어 공보처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수까르노의 특별사절단으로 유럽을 다니며 1947년 런던에 공보처 출장사무소를 열기도 했다. 그는 1954년-1956년 기간 중 주소련 대사를 지낼 때 좌익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공산주의의 발전을 목도하며 그 영향을 받았다. 그는 1956년 수까르노의 부름을 받아 자카르타에 돌아와 외무성 사무총장이 되었고 1960년엔 마침내 외상 겸 제2부총리의 자리에 오른 후 1962년엔 외무-경제 관계조정장관을 겸임했다. 그는 이 세 개의 직위를 동시에 유지했고 1966년

까지 인도네시아 정보국 BPI의 수장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면서 명실공히 수까르노 정권의 최고 실세로 떠올랐다. 중국과의 수교도 그의 작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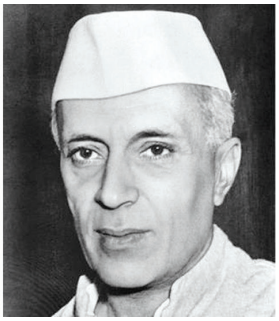
수까르노는 1956년 북경을 처음 방문한 후 중국을 비롯해 공산권 전반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소련연방으로부터의 군사원조 규모는 날로 증가해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소련은 인도네시아에 그 어떤 서방국가보다도 더 많은 군사원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규모는 소련의 대쿠바 원조와 맞먹을 정도였다. 공산권으로부터의 막대한 원조는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존 F 케네디 행정부로부터도 거대한 군사원조를 끌어내는 동력이 되었다. 당시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인도네시아가 공산진영으로 넘어가게 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1956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수까르노는 뜨거운 환대를 받으며 미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을 방문했을 때엔 더욱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 소련의 니키타 후루시초프 서기장이 교환방문 성격으로 1960년 자카르타와 발리를 방문하여 수까르노에게 레닌평화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1960년대 초반을 지나며 수까르노가 공산권에 한 발 더 다가간 것은 PRRI-뻬르메스타 반란에 미 CIA가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인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케네디 대통령은 수까르노를 워싱턴으로 불러들여 환대하며 인도네시아에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민간 및 군사원조를 제공했다.

1955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반둥회의에 이어 수까르노는 그가 '신식민주의와 제국주의'(NEKOLIM)이라 비난하던 서방열강들을 '기존구태세력'(OLDEDO)라 칭하며 그 반대 개념으로서의 '신흥세력국가들'(NEFO)과의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축하려 했다. 1961년 수까르노는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 대통령, 인디아의 판딧 자와할랄 네루 수상, 유고슬라비아의 요십 브로즈 티토 대통령, 가나의 크와메 크루마 대통령 등과 함께 '5인의 발의'라는 공동선언을 통해 비동맹운동(NAM)이라 명명한 또 다른 정치동맹을 만들었다.

NAM은 당시 냉전체제와 연계하여 미국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정치적 공동체의식과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수까르노는 이때까지만 해도 대외적으로 신흥독립국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며 좋은 이미지를 구축했고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와 모로코 라밧의 도로엔 그의 이름이 붙여지고 파키스탄 페샤와르엔 그의 이름을 딴 광장에 건설되기도 했다. 그는 1956년엔 베오그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도 받았다.

낫세르


네루

수까르노

티토 크와메

크루마

■ 경제·비즈니스 관련

2022년 예산안 테마는 '허리띠를 졸라 매자'

2022년 국가예산 규모

조코위 대통령이 8월 16일 국회(DPR)에서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팬데믹 장기화와 글로벌 회복 불균등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을 약속했다.

2022년 인도네시아 예산안은 의료, 사회보장, 인프라 등 프로그램 개혁 지원 자금을 포함해 총 2,708조 루피아(1880억 달러) 규모이다.

재정지출은 2022년에 2,708조 루피아(미화 1880억 달러)로, 2021년 2,697조 루피아보다 0.4% 늘려 책정했다.

재정수입은 2022년에 1,841조 루피아로, 2021년 1,736조 루피아보다 6% 늘려 책정했다. 재정수입은 세금, 배당금, 로열티, 원조자금 등으로 충당한다. 재정적자는 2022년에 868조 루피아로 GDP의 4.85% 수준으로 책정했다. 2021년 재정적자는 962조 루피아로 GDP의 5.8% 수준으로 책정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2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위협, 지정학적 변동성 고조, 세계 경제 회복의 불균등 등과 같은 세계적인 어려움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시경제지표 가정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힌 2022년 예산안에 언급된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률은 2021년 3.7~4.5%, 2022년 5~5.5%로 가정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7.07%였다. 인플레이션은 2021년 1.8~2.5%, 2022년 3%로 가정했다. 2020년 인플레이션은 1.68%였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2021년 6.34~7.24%, 2022년 6.82%로 가정했다.

루피아/달러 환율은 2021년 14,200~14,600, 2022년 14,350대로 가정했다.

Jakarta Interbank Spot Dollar Rate (JISDOR)은 2019년에 14,146, 2021년 8월 18일에 14,383이었다.

유가는 2021년 배럴 당 55~65달러, 2022년 63달러로 가정했다.

실업률은 2022년에 5.5~6.3%로 가정했다. 2021년 2월 실업률은 6.26%였다.

빈곤률은 2021년 9.2~9.7%, 2022년 8.5~9%로 가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 인도네시아 빈곤률은 9% 미만이었으나, 2021년 3월에 10.1%로 상승했다.

불평등을 지표화한 지니계수(Gini ratio) 2021년에 0.384에서 2022년에 0.376~0.378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개발지수(Indonesia's development index)는 2021년에 71.8에서 2022년 73.41~73.46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재정적자 축소 쉽지 않아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를 868조 루피아(미화 510억 달러)로 책정해, 국내총생산(GDP)의 4.85%가 넘지 않도록 했다.

올해 재정적자는 5.82%로 예상되고, 2020년에는 6.14%였다. 재무장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 정책 및 시스템 안정화 법률 No2/2020에 따라 정부는 최대 3년 동안만(2020~2022년) 재정적자 상한선을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재정적자를 상한선인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2023년까지 예산적자를 GDP의 3% 미만으로 내리기 위해, 내년 재정적자를 올해보다 줄여야 하지만 실제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정부는 내년 조세수입을 1,500조 루피아로 올해보다 9% 늘려 책정했다.
재무부는 내년에 경제 활동 확대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VAT) 징수액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 반면 법인세율을 기존의 22%에서 20%로 인하한 것이 내년 조세수입 증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았다.
내년 비조세수입은 3,332조 루피아로 올해보다 6.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급등했던 자원 특히 석탄 가격이 정상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았다.

코로나19 대응 예산 축소

정부는 지난 10년 간 이어진 재정지출 확대를 중단했다.
내년 2022년 재정지출은 2,700조 루피아로 올해보다 0.4% 늘리는데 그쳤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보건 예산은 2022년에 255조3천억 루피아로 21.78%, 줄였다.
복지 예산은 2022년에 427조3천억 루피아로 12.4% 줄였다. 정부는 식량, 주택, 에너지, 교육 등 기초 생계지원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빈곤층 1억6,100만 명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 예산은 내년에 541조7천억 루피아로 0.26% 늘렸다.
인프라 개발 예산은 2022년에 384조8천억 루피아로 8% 줄였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코로나19 대응 및 국가경제회복(PC-PEN) 예산 중 보건과 복지 부문 지출을 축소했다고 16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정부는 PC-PEN 프로그램 예산을 2021년에 744조 루피아에서 2022년에 321조 루피아로 축소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2022년 예산을 설계할 때 코로나19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팬데믹이 악화될 경우 국회의 승인 없이 정부가 예산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직 국회와 예산안을 논의 중이라며, 최종적으로는 PEN 예산이 16일에 발표한 것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비즈니스, PEN의 예산 중 조세인센티브, 영세중소기업(MSME)과 협동조합 지원 등의 예산은 언급하지 않았다. 2021년에 이들 세 부문 예산은 745조 루피아였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내년에도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다양한 조세인센티브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뜨리 리스마하라니(부르는 이름: 리스마) 사회복지장관은 내년에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복지 예산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예산안에 대한 반응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거시경제지표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1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하방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서둘러 재정지출을 줄일 경우 경제 위기를 심화하고 회복을 위태롭게 하며 절대빈곤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경제성장에 재정지출이 기여하는 비중이 컸지만, 2022년에는 가계지출과 투자 비중이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쉽지 않다고 보았다.
조코위 대통령은 재정지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건, 사회보장, 교육 등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을 가속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탓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송금액 급감

2020년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TKI)의 취업국가가 감소하고 송금액도 급감했다고 8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해외에서 송금하는 돈은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이주노동자 가족과 지역 경제를 부양하고 국가금융통합을 가속화는 역할에 이르기까지 경제 ·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

2020년 이주노동자 수는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이 국내로 송금하는 금액도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동성이 제한되고, 각국의 경기 침체로 이주노동자 수요가 감소한 결과이다.

2021년 2분기 인도네시아 소득수지 중 수입은 26억 달러였고 이 중 87%가 이주노동자 개인송금이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그리고 소득수지로 구성된다.

2020년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국내 송금액은 94억 달러였고, 이는 베트남(172억 달러)의 55%, 필리핀(349억 달러)의 27%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가 이주노동자 송금액을 베트남만큼 늘릴 수 있다면, 2020년 경상수지를 44억 달러 적자에서 33억 달러 흑자로 바뀔 것이고, 송금액을 필리핀만큼 늘린다면 201억 달러 흑자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이주노동자 해외송금은 큰 잠재력이자 이를 늘리는 일이 큰 과제이다.

최근 수년 간 이주노동자가 인도네시아로 송금한 금액은 2019년 상반기에 48억6천만 달러, 2020년 하반기에 45억6천만 달러, 2021년 상반기에 45억3천만 달러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에 따르면, 주요 송금 지역은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 중동 지역이다.

2021년 1분기 이주노동자 송금액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63%였고, 중동 지역은 36%였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중 50%는 말레이시아, 20%는 사우디아라비아, 16%는 대만과 홍콩에서 근무한다.

미국, 호주 및 유럽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인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1인당 송금액은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다. 예를 들면, 2020년 미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인의 1인당 송금액은 중동보다 31배, 아세안보다 64배 많았다.

이주노동자의 기술을 향상시켜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하고 취업국가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송금 경로와 행동을 이해하는 것도 송금 규모를 늘리는데 중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은 인도네시아로 귀국하는 동료를 통해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등 비공식 채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식집계에 잡히지 않고 송금 규모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다.

이주노동자들이 공식채널 송금을 꺼리는 이유는 높은 수수료를 지적한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로 200달러를 송금할 경우 평균 송금비용이 6.5%로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0년 기준으로 필리핀은 송금비용이 인도네시아보다 29% 낮았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장관령 발효 전에 대통령 승인 절차 추가"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은 향후 장관령을 발효하기 전에 자신에게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고 8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령(Perpres) No. 68/2021이 8월 6일에 발효됨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은 각 부처 또는 기타 중앙정부 기관에서 제정한 장관령의 초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을 공식적으로 갖게 됐다.

다만 새 대통령령은 국가중기발전계획(RPJMN), 국방, 국가재정 등 전략적이거나 많은 기관이 관련된 사안이거나 대중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관령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승인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새 대통령령은 법규정의 초안이 기존 법규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법률인권부가 검토한 후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쁘라모노 아눙 내각장관은 정부 부처나 기관이 입안하는 새로운 장관령이 대통령의 지시나 각료 회의에서 내린 결정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통령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조코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많은 장관들이 종종 다른 장관들과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규정을 발표하는 것을 관찰한 후 새 대통령령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속 정치학자 아리야 페르난데스는 8월 26일 각 부처의 장관령이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장관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데 새 규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끄다이꼬피(kedaikopi)의 군또 아디 위보워 대표는 새 규정으로 관료주의 절차가 추가돼 행정적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고, 대통령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정부 기관의 분권화와 권력 분담이라는 시대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내년 10월 시험운행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제3 도시 반둥까지 142㎞ 구간을 달리는 고속열차가 2022년 10월에 시험 운행될 전망이다.

8월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리드완 까밀 서부자바 주지사는 전날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이 2022년 1월에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10월에는 시험운행을 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 고속철도는 당초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했지만,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토지수용 절차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 고속철 공사비는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총 23조 루피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국은 최근 이 고속철도에 서부자바주 서부반둥에 빠달라랑 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정차역이 당초 4개역에서 5개역으로 늘어난다.

앞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를 건설 중인 인니·중국합작사(KCIC)는 2022년부터 운행할 차량으로 중국산 고속열차 'CR400AF'를 선정했다. CR400AF는 중국 CRRC 칭다오쓰팡(青島四方)사가 개발한 최신형 고속열차로, 최고속도 시속 420㎞로 디자인됐고 통상 시속 350㎞로 달린다.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은 무정차 운행 시 35분, 역마다 운행하면 46분이 걸린다. 현행 열차는 3시간가량, 버스의 경우 2시간 30분~5시간이 걸린다.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요금은 228,800루피아선에서 검토 중이지만, 2021년 소비자 구매력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은 중국이 일본을 따돌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대형 고속철 사업이다.

Indonesia Presidential Decoration 76th anniversary

독립기념일을 수놓는 꽃

헬른(Heylen)/ HOTEL GRAN MELIA

이번 9월호는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지난달 독립기념일(8월 17일)에 자카르타 대통령궁을 화려하게 장식한 꽃이 있는데 혹시 눈여겨 보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대통령궁에서 예년보다 한층 더 화려한 꽃 디자인으로 독립기념일을 축하한 느낌이었어요.

전국화환전문가협회 회원 전원이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PCR검사까지 하고서 대통령궁을 입장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같았던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독립기념일 즈음에는 코로나 상황도 많이 좋아지고 건강한 상태로 대통령궁에 입장한 꽃 전문가들의 기운을 받아 화려한 꽃 장식이 탄생한게 아닐까 생각해요.

직접 대통령궁 '꽃단장'에 참여한 분의 얘기를 들으니 작년에는 사용한 꽃 종류가 그리 많지 않았더라고요. 10가지 미만이었다고 하는데 '선택받은' 몇 안 되는 꽃에는 빨간색 흰색 포인세티아(kastuba), 홍장미, 백장미, 빨간색 흰색 거베라(gerbera, 국화과)가 있었어요.

올해는 정말 다양한 꽃이 등장했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장미와 포인세티아 외에도 안수리움(홍학꽃, bunga gelombang cinta),

초화백합(lilium casa blanca), 흰 나팔꽃(bunga trumpet putih, bunga kecabung), 자스민, 헬리코니아(tanaman pisang-pisangan), 거베라(gerbera), 아마릴리스(bunga bakung), 난초류(anggerek bulan, anggrek kalajengka).... 처음 듣는 꽃 이름도 많으실 것 같네요.

팬데믹 전에는 국가 행사에 리본도 다양하게 쓰고 바틱이나 지역특산물로 나오는 천, 와양골렉(wayang golek, 나무 와양), 벼(추수하기 전) 옹기, 동으로 만든 그릇, 코코넛 잎으로 짜서 만든 갖가지 물건들도 꽃과 함께 사용하였어요.

국가행사에 쓰이는 꽃 중에는 수입꽃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전국 방방곳곳에서 '인도네시아 꽃'을 수소문해 대통령궁으로 가져 오는 것이지요.
대통령궁에 '꽃단장을 입힐 때'는 수 백여명이 참여해요. 팬데믹 전에는 300명까지 동원되었는데 지금은 170명(화단관리 전문인력 70명, 보조인력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인력이 동원되다보니 화단 작업을 하는 시간도 짧은 편인데요. 보통은 8월 15일 한밤중에 일을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6시간만에 일을 마친다고 해요.
행사직전에 뚝딱!하고 밤새 새단장을 하는 거네요.

독립기념일에 대통령궁을 장식하는 꽃들의 꽃말도 알려드릴게요.

안수리움(Anthurium, 홍학꽃): 행복, 친절함, 긍정적인 마음
난초류(anggerek bulan) : 인내, 만개와 아름다움을 향한 열정.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고 성공하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하고 과정을 이겨내야 하죠.
자스민(melati) : 신성함. 검소함과 진정성에서 드러나는 우아함
빨간 장미 : 존경과 순수한 사랑
흰 장미 : 신성함, 때묻지 않은 순수함, 영원한 충성심
초화 백합 : 신성함, 매력적인 순수함, 진정성, 고귀함, 헌신, 우정
이런 꽃들을 화단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궁에서 준비되는 전국의 토속 음식에도 데코레이션으로 쓰인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나시 꾸닝(nasi kuning)', '나시 뚬뿡(nasi tumpeng)' 있지요? 생일이나 결혼식처럼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먹는 그 밥에도 장식으로 꽃을 놓구요. 죽(bubur merah putih, 애기 생일 때 먹는 죽), 꾸에 짜라비깡(kue carabikang, 빵류, 중부자바 음식), 끌레뽄(klepon), 뜰루르 삔당(telur pindang, 자와의 계란 요리), 꾸에 반드로스(kue bandros, 코코넛으로 만든 빵류). 특별히 '꾸에 짜라비깡'하고 '끌레뽄'은 인도네시아 국기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흰색으로 만들어요.

nasi tumpeng

klepon

제가 소개해 드린 이 특별한 음식 중에서 몇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나시 꾸닝, 나시 뚬뿡(nasi kuning / nasi tumpeng)

큰 잔치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프리마돈나' 같은 음식이에요.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인데요. 노란 밥이 산 모양 또는 고깔모자 모양으로 세워져 있고 그 주변으로 반찬이 있어요.반찬에는 아얌 고렝(ayam goreng, 닭 튀긴 것)이나 스위란 아얌(swiran ayam, 닭고기 찢은 것), 뗌뻬(tempe, 된장콩 발효음식), 퍼르커델(perkedel, 감자 고로케 같은 것), 삼발 고렝(sambal goreng), 계란후라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비옥한 땅을 상징하는 그런 반찬들을 다양하게 두는 거예요.

보통 '노란색' 나시 뚬뿡을 주로 접하셨을 테지만 독립기념일에는 아무래도 빨간색과 흰색의 상징성이 크다보니 나시 뚬뿡도 빨간색과 흰색으로 만드는데요, nasi merah 를 사용해 붉은색을 표현해요. 흰쌀밥 위에 두면 제법 인도네시아 국기 모양처럼 되지요.

죽(bubur merah putih)

이 죽은 부부르 승꼴로(bubur sengkolo)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찹쌀죽에 gula merah, gula aren을 써서 붉은색을 내는데요, 역시 이런 설탕과 잘 어울리는 코코넛 우유도 들어가요. 흰색은 '뼈', 붉은 색은 '피'를 상징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죽을 먹으면 신성한 인간으로 돌아가고, 또 신에게 드리는 기도로 우리를 안내한다고 믿어요.

꾸에 짜라비깡(kue carabikang)

모양은 스라비(serabi, 빵류 간식)와 비슷해요. 스라비가 색깔이 참 다양해요. 활짝 피어 있는 꽃등처럼요. 달달한 맛에 쌀가루로 만든 간식이에요.

끌레뽄(klepon)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간식인데 한국의 경단 떡이랑 약간 비슷하지요. 다른 점은 '행복을 향한 인내'를 상징하는 코코넛가루가 묻혀져 있다는 건데요. 찹쌀로 만들어 쫄깃하고 안에는 설탕소를 넣어서 달콤해요.
보통은 녹색이 많은데(녹색은 번영을 상징) 독립기념일에는 특별히 빨간색과 흰색으로 만들어요. 떡 속에 숨어 있는 달콤한 설탕처럼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좋은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뜰루르 삔당(telur pindang)

팔렘방(Palembang) 음식인데요. 겉으로만 보면 구운 계란같은 색인데, 아삼(asam)을 섞은 물에 삶아 만들어요. 이 계란을 먹으면 다산을 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꾸에 반드로스(kue bandros)

떡과 비슷한 음식인데 설탕을 겉에 뿌려져 있어서 차나 커피와 함께 먹으면 잘 어울려요.
독립기념일이 되면 약간 굽은 모양을 한 꾸에 반드로스를 파는 상인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다음 호에서 또 만나요. (번역: 민선희)

carabikang

telur pindang

나는 바하사로 수다떤다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인의 어떤 모습(문화, 생활습관)을 신기해 하는지 인도네시아어로 한번 공부해 봅시다.

① Wanita Korea duduk dengan selimut yang menutupi lutut.

Danu : Cewek Korea itu suka pakai rok pendek, ya?
Sani : Aku sih jarang pakai rok di atas lutut, soalnya kakiku terlalu besar hahaha tapi banyak sih yang suka pakai rok dan celana pendek, apa lagi kalau musim panas. Tapi suka-suka pribadi sih, tergantung tren juga. Kalau di Indonesia kayaknya aku jarang lihat cewek pakai rok pendek.
Danu : Kalau aku lihat Idol Kpop di tv, mereka selalu nutupi lutut pakai selimut.
Sani : Iya kalau duduk biar gak kelihatan dalamannya.
Danu : Yang bukan artis juga suka gitu gak sih di kafe atau restoran.
Sani : Aku rasa di restoran sih gak ya… kecuali lesehan… tapi mungkin di kafe kecil gitu ada yang sediain (selimutnya).

① 한국여자들은 앉을 때 담요로 무릎을 덮는다.
다누 : 한국 여자애들은 짧은 치마를 자주 입던데?
사니 : 나는 무릎 위로 오는 치마는 거의 안 입기는 하는데 다리가 너무 굵어서 하하하. 근데 짧은 치마나 바지 입는 사람이 많긴 하지. 여름에는 더우니까 더 그렇고. 근데 개인 취향이지 뭐. 트렌드 일 때도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짧은 치마 입은 여자는 거의 못 본거 같긴 해.
다누 : 티비에서 한국 아이돌 보면 걔네들은 늘 담요로 무릎을 덮더라고.
사니 : 앉을 때 안에 보이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뭐
다누 : 연예인이 아닌 사람도 카페나 식당에서 그렇게 해?
사니 : 식당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좌식이 아니면 말야… 근데 작은 커피숍 같은 데는 (담요를) 준비하는 데가 있을 것도 같아.

② Di Korea, sering ada razia tes alkohol di jalan pada malam hari.

Andoria : San. Kalau nonton drakor itu sering banget aku lihat orang mabuk di jalan. Memang enggak ada jam malam di sana? Bebas ya?

Sani : Zaman dulu sih ada jam malam, tapi sudah gak ada lagi sekarang. Apalagi sekarang karena lagi ada covid, jam buka restoran dan bar itu dibatasi. Jadi aku rasa, banyak berkurang orang mabuk di jalan.

Andoria : Terus, polisi di sana sibuk razia juga gak? kayak di Indonesia… tapi di sana razia tes alkohol kali ya?

Sani : Iya betul. Kalau di Indonesia kan razia SIM ya kebanyakan. Di Korea kalau malam hari sering ada tes alkohol buat sopir. Jadi kalau disuruh minggirin(meminggirkan) mobilnya, harus buka jendela untuk dites. Sekarang kalau kita bawa mobil untuk pergi minum, harus panggil sopir berbayar untuk pulang. Banyak orang yang bekerja malam hari menjadi sopir berbayar ini. Tapi sekarang mereka agak susah juga ekonominya…. Karena ada pembatasan jumlah orang untuk pertemuan dan orang gak bisa minum di luar sampai malam-malam sekarang.

② 한국에는 밤에 기습 음주테스트가 자주 있다.
안도 : 산. 한국 드라마 보면 취해서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 되게 자주 나오더라구. 통금시간 같은 거 없어? 자유롭게 다니나봐?
사니 : 옛날에는 통금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진 지 오래 됐어.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식당이나 술집 영업시간도 제한이 있고. 그래서 길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안도 : 그리고 한국에 있는 경찰들도 단속을 많이 하고 그러나? 인도네시아처럼? 근데 한국에서는 음주 단속을 하는 거지?
사니 : 어. 인도네시아는 거의 다 운전면허증 단속이 많잖아. 한국은 밤에 운전자들 음주테스트를 해. 그래서 차 길가로 세우라고 하면 세우고 창문 열고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차를 갖고 나가서 술을 마시면, 집에 올 때는 대리운전사를 돈 주고 불러야 돼. 밤에 대리운전사로 일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요즘에는 그 분들도 힘들 것 같네, 요새는 밤에 집합 인원을 제한해서 밖에서 술 마시기가 어려우니까.

③ Tidak berteduh saat hujan.

Tur : Orang Korea berani banget ya hujan deras, tetap jalan kaki pakai payung.

Sani : Hahaha di Indonesia beda ya, orang biasanya berteduh dan sabaaaaaarrrr sekali menunggu hujan berhenti. Kan harus bawa motor, bahaya juga kan kalau nekat bawa motor.

Tur : Makanya, nunggu hujan reda dulu.

③ 비가 오면 건물 (처마나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지 않는다.
뚜르 : 한국 사람들 대단한 거 같아(겁이 없는 것 같아), 비가 억수같이 와도 우산 쓰고 걷잖아.
사니 : 하하하 인도네시아 하고는 다르지?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처마나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 잖아 비가 그만 올 때까지 어찌나 잘 참고 기다리는지 말야. 오토바이 운전해야 하니까. 기를 쓰고 운전하기가 너무 위험하지.
뚜르 : 그러니까. 비가 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④ Makanan rumah sakit yang enak.

Ando: San, di Korea makanan di rumah sakit itu enak ya? Enak dan bergizi gitu, ya?

Sani : Bergizi itu yaaa pasti. Tapi kalau enak….hmmm menurutku sih biasa saja. Kenapa?

Ando : Kalau nonton drakor makanan di rumah sakit itu keliatan ok banget.

Sani : Menunya memang bervariasi. Kalau menurut pengalamanku sih, banyak orang Korea yang gak suka makanan di rumah sakit, jadi keluarganya bawa bekal nasi dari rumah taruh di kulkas di ruang inap. Kalau makan makanan di rumah sakit doang mungkin bisa kurus kali ya. Kalorinya rendah dan sehat hahaha.

④ 맛있는 병원 음식
안도 : 산, 한국에서는 병원 음식이 맛있나봐? 맛있고 영양가도 있고 응?
사니 : 영양가는 있는 건 확실히 맞는데…. 맛있는 건… 글쎄…. 내 생각에는 그냥 그런 거 같은데 왜?
안도 : 한국 드라마 보면, 병원 음식이 되게 괜찮아 보이더 라고.
사니 : 메뉴가 다양하긴 해. 근데 내 경험으로는 병원 음식 안 좋아하는 한국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가족이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와서 병실 냉장고에 둬. 병원 음식만 먹으면 살이 좀 빠질 거 같긴 한데 말이지. 칼로리도 낮고 건강하고 하하하하.

⑤ Pelancong bisa tinggal di sauna.

Winda : Kalau aku ke Korea, aku mau ke cimjilbang dan minum sikhye.

Sani : Sama telur rebus juga ya hahaha. Kalau terlur asin gak ada. Selain telur rebus, ada macam-macam sih. Aku juga belum pernah makan telur di sana. Hahahaha. Sekarang karena covid, sauna-sauna gitu tutup. Ada yang buka tapi sering ada kluster

covid. Besok, ya kalau Winda ke Korea, aku temenin ke sauna.

Winda : Iya, aku pengin coba seperti pelancong lain yang suka ngemil di cimjilbang. Katanya, pelancong bisa tidur bermalam juga di sana.

Sani : O ya? Aku baru tahu hahaha. Kalau pas musim dingin, enak banget kali ya, tidur di lantai hangat-hangat.

⑤ 여행객이 사우나에서 잘 수 있다(묵을 수 있다).
윈다 : 나 한국 가면은 찜질방 가서 식혜 마실 거야.
사니 : 계란 찐 거도 같이 먹어 알았지? 하하하. Telur asin은 없어. 삶은 계란 말고도 다른 것도 많아 많기는. 근데 나는 거기서 삶은 계란을 못 먹어 봤어 하하하하.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가 문을 닫았어. 여는 곳도 있지만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해. 나중에 윈다가 한국에 가면, 내가 사우나 같이 가줄게.
윈다 : 응. 다른 여행객들처럼 찜질방에서 간식먹고 그러는 거 하고 싶네. 찜질방에서 하룻밤 잘 수도 있다면서?
사니 : 아 그래? 몰랐어. 하하하. 겨울에 딱 가면은 진짜 좋겠다, 바닥 따끈따끈한 데서 자면.

⑥ Orang Korea tidak berbicara dengan lawan jenis jika memiliki kekasih?

Eddo : Sani, katanya di Korea kebanyakan orang tidak percaya kalau laki-laki dan perempuan bisa berteman, ya?

Sani : Iya banyak yang enggak percaya. Bahkan ada juga kalau berpacaran, lawannya enggak diizinkan untuk pergi dengan teman lawan jenis. Banyak yang takut pacarnya selingkuh atau ditembak sama orang lain.

Eddo : O gitu…Katanya berbicara dengan cowok lain atau cewek lain juga enggak boleh ya?

Sani : Wah, kalau gitu diktator banget dong. Enggak sampai segitunya sih wkwkwk. Tapi bisa cemburulah.... Jadi kalau mau punya pacar yang biasa-biasa saja. Enggak usah yang cakep-cakep.. Hahahaha…

⑥ 애인이 있으면 다른 이성과는 얘기하지 않는다?
에도 : 사니, 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사니 : 어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연애할 때, 상대방이 남사친(여사친)과 어딜 가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애인이 바람 피우거나 다른 사람이 애인한테 고백할 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에도 : 그렇구나… 다른 여자나 남자랑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
사니 : 와…. 그 정도는 독재자 아니니…..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ㅋㅋ 질투는 좀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해야지 너무 잘생기고 예쁠 필요가 없다니까 하하하.

참고자료 "16 fakta korea selatan yang tak diketahui orang dari standar kecantikan hingga cara tidur" Tribun News (2020.7.25)

나를 쑥쑥 키우는 인니어 질문은 여기로 ☞ nusantara817@daum.net

POKENBIR
(나시고렝 바비 맛집)

글: 주윤지(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요새 코로나19 백신 미 접종자는 자카르타 쇼핑몰 출입금지 등 제한이 많아 백신 접종 참여자분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백신 후유증과 부작용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기사 <CNN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1위 인도네시아 른당(Rendang), 2위 인도네시아 나시고렝(Nasi Goreng), 3위 일본 스시(Sushi), 4위 태국 똠얌꿍(Tom Yam Kung), 5위 태국 팟타이(Phat Thai) 등이 선정되었는데요. 랭킹 상위권에 인도네시아 음식이 2개나 선정되어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중 2위에 빛나는 나시고렝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면서 어느 식당을 가든 흔히 볼 수 있는 메뉴가 나시고렝인데요. 나시고렝은 밥을 채소, 고기, 달콤한 간장, 토마토 소스, 매콤한 고추소스 등과 함께 볶아 만든 인도네시아식 볶음밥입니다. 보통 나시고렝 메뉴는 나시고렝 아얌(Nasi Goreng Ayam, 닭볶음밥), 나시고렝 사삐(Nasi Goreng Sapi, 쇠고기 볶음밥), 나시고렝 씨푸드(Nasi Goreng Seafood) 등이 대부분인데요. 혹시 나시고렝 바비(Nasi Goreng Babi), 즉 돼지고기 볶음밥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 나시고렝 바비를 판매하는 특별한 맛집 <PokenBir>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꾸닝안 지역에 위치한 식당 <PokenBir>는 원래 예전부터 포크밸리(Pork Belly), 나시 짬뿌르 바비(Nasi Campur Babi) 등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메뉴는 나시 고렝 바비 아삽(Nasi Goreng Babi Asap)(95,700루피아)입니다. 우선 먹기 전에 돼지 바베큐향과 가쯔오부시향이 솔솔 올라와 코를 자극합니다. 써니사이드업 스타일의 계란 후라이가 예쁘게 올려져 있어 눈도 즐겁습니다. 곁들어진 아삭한 오이 피클이 다소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고들고들한 밥알 사이 속 쫄깃쫄깃한 돼지고기를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맥주를 부르는 맛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인 남성 2인분에 달할 정도로 양이 매우 많습니다. 강추입니다!
나시고렝 외에 바비 리짜(Babi Rica)(82,500루피아)도 추천드립니다. Babi Rica는 매운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불닭볶음면의 매움 정도로 엄청 매워요~ 매운 빨간 고추가 엄청 많아 딱 보기에도 엄청 매워보입니다. 다소 느끼한 나시 고렝과 함께 먹기에 딱입니다. 특히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크 숏 립 스프(Pork Short Ribs Soup)(99,000루피아)도 추천드립니다. 일전에 보양식 특집으로 소개해 드린 바꾸떼(Bak Kut Teh)와 맛이 비슷한데요. 바꾸떼보다는 향신료 맛이 다소 덜합니다. 한국의 갈비탕과 달리 고기가 전혀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고깃살만 손쉽게 발려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먹기에 편합니다. 물론 보양식으로도 딱입니다!
고젝(GoJek) 및 그랩(Grab)을 통해 배달 주문 가능하니, 보다 편하게 집에서 나시고렝 바비(돼지고기 볶음밥)를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특별한 나시고렝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맛있게 드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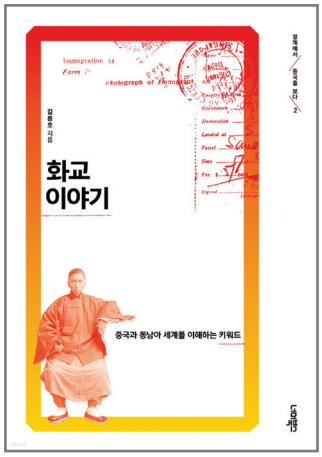
<식당 정보 : POKENBIR>

음식 종류 : 인도네시아 음식
가격대 : Rp 3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10:30~21:00 (변동 가능)
위치 : Lippo Kuningan
Jl.H.R.Rasuna Said, Kuningan,
Jakarta Selatan

※ Google 참고

인도네시아의 중국계 무슬림

제목 : 화교 이야기 중국과 동남아 세계를 이해하는 키워드
저자 : 김종호
출판사 : 너머북스
출판일 : 2021년 01월 29일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국장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계 무슬림은 종교와 종족을 초월한 화합의 상징으로 여겨진 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인에게는 중국인이라고 배척당하고 중국인에게는 무슬림이라고 배척당하는 이중 차별에 놓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15세기 무렵부터 중국인 상인들은 무슬림으로 인도네시아로 오기도 했고 비무슬림으로 왔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중국계 무슬림에 대해 <화교 이야기>에서 발췌해 정리했습니다.

〈묻고 답하기〉

묻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화교는 불교, 기독교, 유교만 믿을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있을까?

답하다) 인도네시아 화교 중에도 적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소수에 속하는 중국계에서도 무슬림은 드물기 때문에 소수 중에서 소수라고 불린다.

묻다) 인도네시아의 중국계 무슬림은 언제부터 있었나?

답하다) 15세기 무렵부터 푸젠이나 광둥에서 건너온 중국인 상인들이 주요 거점인 자바섬 북부지역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무슬림 공동체에 스며들기 위한 전략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몇몇 중국인 상인은 지배계층과 혼인을 통해 이슬람화하면서 당시 자바 북부 이슬람 세력의 지배계층을 형성하기도 했다.

묻다) 인도네시아로 간 중국인들이 이슬람화한 이유는?

답하다) 15세기 전후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 상인의 위력이 가장 셌고 도서부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슬람화가 가속되면서, 상당수의 중국계 상인이 결혼 및 개종을 통해 지역사회에 편입하고자 했다.

묻다) 15세기 전후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 상인의 위력은 어느 정도였나?

답하다) 이슬람 상인은 유럽-서아시아-남아시아-동남아시아-동북아시아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있던 세력으로 ▲당시 이슬람 세력이 세계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슬람 상인의 상업 및 금융 기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하여 있었으며 ▲동과 서의 상품을 교역하는 유일한 상인 그룹이었다. 이슬람 상인들은 상행위를 할 때 이슬람 법률에 기반한 상관행을 유지했고, 말레이와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오랑 라웃(Orang Laut)이라 불리던 현지 해상민족과 중국인 상인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묻다) 15세기 무렵 형성된 자바 북부 항구도시의 역할은?

답하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드막, 수라바야, 끈달 같은 항구 도시들이 15세기 무렵 형성된다. 이들 항구 도시들은 동서 교역의 주요 교통로인 말라카와 향신료 주산지인 말루쿠제도를 연결해 주는 중개지역 역할을 했다.

묻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화 과정은?

답하다) 자바와 수마트라 및 부속 군도, 보르네오섬 등 지역의 이슬람화는 13세기 후반을 그 시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계 이슬람 상인이 직접 동남아시아에 이슬람교를 전파했고, 15세기 전후로 무슬림이 된 중국인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중국인들도 인도네시아와 무슬림들을 연결하며 이슬람을 퍼트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6세기 즈음에는 자바섬 북부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아랍, 인도, 말레이, 중국인 등 다인종 이슬람 공동체가 형성된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교역을 매개로 서로 다른 종족적 배경을 지난 상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

1572년 자바 최초의 이슬람국가 드막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바 북부 항구 도시들 간 이슬람 연합세력이 힌두교와 불교 중심의 마자파힛 왕국을 무너뜨리고 자바 지역을 장악한다. 이를 계기로 중부자바에는 마타람 술탄국, 서부자바에는 반뜬 술탄국이 형성되고 자바섬의 이슬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묻다) 정화(쩡허) 제독의 남해대원정이 인도네시아에 미친 영향은?

답하다) 정화 제독의 남해대원정은 명나라 때인 1405년부터 7차례나 진행됐다. 정화는 동남아시아의 말라카를 거쳐 자바에도 머물게 되는데, 당시 자바 지역에 있던 중국계 이슬람교도들을 만났을 뿐 아니라 자바 지역과 말라카 주변 말레이 세계의 이슬람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화의 이름을 딴 무슬림 사원이 팔렘방, 즘버르, 반자르마신, 수라바야 등 여러 곳에 분포한다.

정화사원은 중국의 도교사원처럼 지어진 이슬람 사원이고, 내부 종교행사를 중국어로 진행하는 등 화교로서의 정체성 강조하고 있다.

묻다) 19세기 이후 중국계 이슬람 공동체가 소수 그룹으로 급격하게 전락한 이유는?
답하다) 자바섬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정통 이슬람교의 확산, 반화교 정서, 민족주의 확산, 중국에서 이주하는 화교의 급증과 화교들이 본국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면서 현지화 노력이 약해진 점, 중국계 공동체와 원주민 공동체를 분리하는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분할통치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묻다) 중국계 무슬림은 얼마나 되나? 줄어들까 늘어날까?
답하다) 중국계 공동체 내에서 무슬림으로 분류되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3년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화교 220만 명 가운데 무슬림은 0.5% 정도였으나, 2010년에는 260만 명 가운데 5% (약 13만 명)로 늘었다. 중국계 가정 내에서도 구성원의 종교가 달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3세대, 4세대 화교 후예는 현지 무슬림과 함께 교육받고, 생활하며 일하는 과정에서 현지화 하면서 개종하기도 하고, 혹은 결혼을 통해 개종하기도 한다.

묻다) 중국계 무슬림이 겪는 어려움은?
답하다) 중국계 무슬림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는 중국인이라고 배척당하고, 다른 중국계에게는 무슬림이라고 따돌림을 당하는 이중 차별 속에 놓여있다. 심지어 무슬림임을 밝힐 경우 가족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어릴 때 개종을 하고도 감추며 사는 사람도 있다.

묻다) 중국계 무슬림은 어떤 정체성을 갖나?
답하다) 무슬림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는 먹지 않지만, 음력설을 쇠는 등 문화적으로 복잡한 정체성을 드러낸다.

묻다) 중국계 무슬림은 어디에서 기도하나?
답하다) 중국계 무슬림들은 그들끼리 모스크를 짓고 중국어로 신께 경배를 드리는 등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기도 한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계 무슬림 협회(Indonesia Chinese Muslim Association PITI)가 형성되는 등 그들 스스로 집단화, 제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묻다) 중국계 무슬림의 미래는?
답하다) 중국계 무슬림은 인도네시아 국가 통합과 조화의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부상에 따라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계이지만 무슬림인 이들을 중국-인도네시아 간 관계의 연결점으로써 상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이들이 소수 중의 소수 그룹이라는 딱지를 벗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홈트의 세계에 빠져봅시다~

어서 와! 지금은 홈트할 시간

글: 정창훈 관장 (발리에서 Uluwatu Collective 체육관 운영 중)

코로나 사태로 인해 Lockdown 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발리 한인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교민 및 현지인들을 위해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인회의 많은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번달은 아래의 4가지 운동을 통해 집에서 하루 약 30분 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요령은 45초 운동 15초 휴식. 각각의 운동을 3회씩 실시하고 총 3 라운드로 진행하겠습니다.

1	Bulgarian Lunge
2	High Knee + 2 Jumping Squat
3	Crunch Kick
4	3 Hop Squat

1. 불가리안 론지(Bulgarian Lunge)

집에 있는 의자를 이용하여 이 운동을 시행한다. 단 바퀴 있는 의자는 안됨.
의자 앞 약 50cm 앞에 선 자세에서 오른발을 의자위에 올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이때 오른쪽 외측광근과 왼쪽의 대퇴이두근을 이용하여 본 운동을 수행한다. 이렇게 오른쪽 5회, 왼쪽 5회씩 번갈아서 운동한다.

2. High Knee + 2 Jumping Squat

양발을 어깨보다 약간 좁게 선 상태에서 준비. 이후 제자리 뛰기를 오른쪽, 왼쪽 무릎을 허리까지 올리면서

High Knee 제자리 뛰기를 양발 5회씩 총 10회 실시.
1) High Knee 10 회

2) 2 Jumping Squat
10회 High Knee 제자리 뛰기 이후 바로 아래의 사진과 같이 Squat 하여 점프를 2회 실시

이렇게 45초 동안 운동 수행.

3. Crunch Kick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머리 뒤로 한 상태가 준비자세. 이후 왼 무릎을 살짝 상체의 오른쪽까지 올리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무릎에 닿는다는 생각으로 올려준다. 이후 오른 무릎과 왼쪽 팔꿈치를 번갈아 가며 운동 수행. 이때 왼 무릎이 올라가면 오른쪽 발은 거의 끝까지 뻗어준다는 생각으로 운동 수행.

4. 3 Hop Squat

양발을 어깨너비로 펼친 상태가 준비 자세. 이후 일반 스쿼트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되 100% 올라오지 않고 약 70% 만 올라오고 이후 다시 스쿼트. 이렇게 3회를 실시하고 다시 준비 자세처럼 100% 몸을 올리면 1회가 된다. 이렇게 다시 3회 스쿼트 & 70% 올라오는 운동을 45초 동안 시행한다.

위와 같이 이번달에는 4가지 동작을 각 3회씩 45초 운동 15초 휴식으로 시행하면 총 12분 정도가 1라운드입니다. 1회 운동할 때 2~3 라운드를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온 몸에 땀이 흠뻑 젖을 겁니다. 이렇게 월, 수, 금요일 시행하여 보시면 자신도 모르게 뱃살이 줄어드는 기적적인 현상을 느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계신 우리 교민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PPKM 끝나고 발리 오시면 꼭 저희 Uluwatu Collective 체육관에 방문하여 함께 운동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운동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ID “pac1jch” 또는 전화번호 081 338 964 258 입니다.
그럼 다음달에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PT. PRATAMA , 어려울 때 함께하는 이웃같은 기업

지난 7월은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에게는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었다.
인도네시아 내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5월부터 확산세로 들어가면서 6월 들어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7월에는 하루 5만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되는 가운데 우리 한인동포 역시 그 위험을 피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급속히 늘어나는 한인동포 코로나-19 감염자를 위해 소매를 걷어부쳐 의료용품(비상키트) 확보를 위한 각 기업과 단체에 지원금을 요청했고 한인동포의 안전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신발제조업체인 PT.PRATAMA ABADI INDUSTRI(회장:서영률)(이하 PRATAMA)에서 10억루피아의 통큰 기부를 해 우리 한인동포의 큰 힘이 되고 재인도네시아한인회의 큰 힘이 되었다.

PT.PRATAMA 서영률회장

PT.PRATAMA는 7월 15일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KOFA)에서 단체로 모금하는 모금에 먼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와 코참에 각각 5,000만 루피아씩 기부했으나 PT.PRATAMA 서영률회장은 델타변이 코로나의 심각성과 한인동포의 위험을 직시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8월 16일 추가로 10억루피아를 쾌척했다.

PT.PRATAMA는 창업 32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1989년 설립된 회사로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둔 신발 제조기업이다. 1990년 나이키를 생산하기 시작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으며 1998년 IMF의 대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탄하고 강한기업으로 거듭나 현재 한국인 근로자 128명과 현지인 근로자 4만여명의 글로벌기업으로 세계적인 브랜드 나이키를 생산하고 있으며 땅그랑 세르퐁과 수카부미, 가롯, 브러버스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세계적인 신발 제조기업이라는 기업의 미션으로 협동과 협업, 품질제일주의, 주인의식, 파괴적 창조적혁신, 개방적사고의 핵심가치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신발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실한 한인기업의 표본이 되고있다.

또한 PT.PRATAMA는 2005년 아쩨지역 해일, 2006년 족자지역 지진, 2009년 시뚜긴뚱 지역 댐 붕괴사고, 2018년 슬라웨시지역 지진과 쓰나미, 2019년 반튼지역 지진과 쓰나미등 많은 재난과 어려움에 소리없는 기부와 지원을 해왔다. 뿐만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대상 화재교육,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교육과 헌혈 등의 활동으로 한인기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 수상으로는 PROPER수상으로 PROPER는 규정에 따라 기업의 환경 매니저먼트를 향상시키는 정부정책중 하나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환경정책평가 대상을 받았고 정부 HS상 수상으로 안전사고 제로상 수상과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상 수상과 기업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인증상을 받았다.
그리고 지역한인회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역 한인회사무실 임대료와 각종 행사에 묵묵히 지원하면서 이러한 선행과 후원에 대해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겸손함으로 한인동포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이번 재난기부금에는 PT.PRATAMA를 비롯해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를 주축으로 많은 회원사에서도 동참했으며 참여한 기업으로는 재인니 한국신발협의회 1억루피아, KMK(회장:송창근) 1억 루피아, 태광 2억 루피아, 파크랜드(대표이사:곽국민) 1억 루피아, SMI(대표:이종윤) 4천만 루피아, ACMI(대표이사:강호성) 6천만 루피아, 미뜨라(대표이사:신동수) 1억 루피아, 한영(법인장:박길용) 3천만 루피아, ASSEMS(대표이사:박성호) 1천만 루피아, JAGO MOLD(대표이사:신현만) 500백만 루피아, 대화(대표:김필수)3백만 루피아 등이다.

PT.PRATAMA의 이번 기부가 한인사회에 항상 함께하는 우리 이웃같은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본다.

(제공 : KOFA 사무국)

'순다'의 역사적 발자취

유은규 (JIKS 교사)

순다족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와족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중요한 종족 그룹으로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15.5%를 차지한다. 순다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와'라고 불리우는 큰 섬의 서쪽 지역에서 생활하며 자와 섬의 주인으로 여겨지는 자와족과 바로 이웃하며 지내왔다. 이름으로만 보자면 순다족은 자와족의 섬에 세들어 살아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순다족과 자와족 사이는 그닥 좋지는 않다. 순다족 젊은이들은 자와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

'순다'는 산스크리트어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빛나는', '밝은', '하얀', '아름다운', '성품이 좋은', '탁월한'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한다. 이름 때문인지 순다족들이 추구하는 생활 방식은 화목하고, 필요 없는 논쟁을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또 순다족 여성들은 자와족보다 더 얼굴이 하얗고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것이 자와이지만, 오랫동안 순다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단어였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살았던 2세기에 이미 현재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은 순다 열도라고 불렸고, 17-18세기의 유럽인들이 만든 지도에도 수마트라와 자와 섬을 포함한 넓은 해양 지역을 각각 Isole della Sonda, 혹은 Die Inseln von Sonte라고 적었는데, 모두 순다 열도라는 의미이다. [1)]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이 1850년대 이후에나 쓰여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는 인도양의 동쪽에 있는 이 섬 지역을 순다 열도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자와 열도가 아니고 순다 열도였을까?

오랫동안 순다족들은 자기들의 왕국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순다 왕국의 통치력이 미치는 땅을 빠순단(Pasundan)이라고 불렀다. 4~7세기경 따루마나가라(Tarumanagara) 왕국이 서부 자와 지역에 존재했었다는 것이 몇몇 역사적 자료로 확인되는데, 이 왕국의 따루스바와(Tarusbawa)라는 왕은 원래 왕의 사위로서 선왕을 계승하면서 왕국의 이름을 순다 왕국으로 바꾸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따루마나가라 왕국의 지배자들은 인도 계통의 종족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왕의 사위였던 따루스바와는 순다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국의 이름을 처음으로 순다 왕국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쨋든 이 순다 왕국은 독립적인 왕국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했다. 팔렘방에 근거를 둔 해상 왕국이었던 스리위자야 왕국의 영향력이 자와 서쪽까지 확장되면서 스리위자야 왕국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제후국으로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 나간다.

---

1) https://www.antvklik.com/rehat/mengapa-indonesia-mengapa-bukan-sunda. 이 지도들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순다 열도와 자와 섬이 동시에 쓰여져 있다는 것이다.

스리위자야 왕국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14세기에 다시 순다족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데, 바로 빠자자란(Pajajaran) 왕국이다. 이 왕국의 수도는 빠꾸안(Pakuan)으로, 지금 보고르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빠자자란 왕국에서는 질 좋은 후추가 많이 생산되어 후추 무역을 통해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고 주요 항구로는 순다 끌라빠(현재의 자카르타), 반튼, 그리고 찌레본 등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자와 섬은 서쪽의 빠자자란 왕국과 동쪽의 마자파힛 왕국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다. 팔라파 맹세로 상징되는 가자마다 재상의 정복적인 대외 팽창 정책의 가장 1순위가 순다였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팔라파 맹세 속에 발리, 순다, 팔렘방 등이 정복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렇지만 가자마다 재상도 이 빠자자란 왕국을 만만하게 볼 상황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두 종족을 결혼 기피 상대로 남게 만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마자파힛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하얌 우룩(Hayam Wuruk)은 빠자자란 왕국의 디아 피따로까(Dyah Pitaloka) 공주와 결혼을 하고자 하였다. 빠자자란 왕국의 입장에서는 당시 열도의 패권국이었던 마자파힛과의 혼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빠자자란 왕국의 왕족들과 귀족들은 결혼 예식을 치르려고 마자파힛의 수도인 트로울란 근처에 있는 부밧(Bubat) 광장까지 와서 캠프를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가자마다가 술수를 부린다. 이 결혼을 빠자자란을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는 기회로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가자마다는 이 결혼이 빠자자란 공주와 하얌 우룩 왕의 정식 결혼이 아니라, 단지 하얌 우룩 왕의 후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빠자자란 왕실에 굴복을 강요한 것이다. 그러나 마자파힛과의 동등한 외교 관계를 원했던 빠자자란의 입장에서 이 굴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턱이 없다.

부밧 전쟁 & 자와족과 순다족의 결혼 신화

부밧에서 두 국가 간의 전면적인 전투가 벌어지지만 수적으로 우세였던 마자파힛 군대가 승리하고 결혼 준비를 위해 왔던 빠자자란 왕국의 왕실 가족과 귀족들은 모두 전사하였다. 빠자자란의 공주는 명예로운 자결을 선택했다. 이 사건은 하얌 우룩 왕에게도 큰 실망을 안겼고 가자마다 재상이 실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후부터 순다족들에게는 자와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된다는 터부가 생겼다고 한다.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2)]

그 이후에도 빠자자란 순다 왕국은 마자파힛 왕국에 큰 복수 혈전을 벌이지는 못했지만, 서부 자와를 순다족들의 땅으로 유지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중반에 자와 섬에는 이슬람 왕국의 확산이 두드러졌다. 드막에 중심을 둔 이슬람 왕국은 마자파힛 힌두 왕국을 발리로 몰아내고 자와 섬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이어서 이슬람 세력은 서부 자와로 눈을 돌려 빠자자란왕국의 주요 항구 도시였던 반튼을 먼저 이슬람의 도시로 만들고 결국 1527년 순다끌라빠를 공격하여 어렵지 않게 점령하였다. 그리고 순다족에게는 상징적인 이 도시에서 '순다'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승리의 도시라는 이름의 '자야까르따(Jayakarta)'로 바꾸었다.[3)]

순다족의 최대 도시가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아쉬운 순간이었다. 후추 무역으로 번성하던 빠자자란이 이 중요한 항구 도시를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었다. 몇 년 후 마지막 순다 왕국도 최종적으로 반튼 이슬람 왕국의 공격을 받아 멸망당하고, 순다 왕족과 귀족들은 보고르의 산악 지대로 도망하여 최후를 맞이하였다. 빠순단이라고 불린 순다족의 땅도, 순다끌라빠라는 순다족의 도시도 사라져 버렸다. 지금 순다는 인도네시아 300여 개의 종족 중 하나의 이름으로만 남아 있다. (순다족은 서부 자와주의 이름을 빠순단주로 바꿔달라고 중앙 정부에 청원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아직 개명되지는 않고 있다.[4)])

순다라는 이름이 원래 인도네시아 열도를 대표하는 이름이었던 과거의 영광스럽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다. 자와 호랑이는 학명이 Panthera tigris Sondaica이고, 자와 코뿔소는 Rhinoceros Sondaicus이다. 이름하여 순다 호랑이, 순다 코뿔소인데,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자와 호랑이, 자와 코뿔소라고 부른다. 그런데 순다 이름을 갖고 있는 호랑이와 코뿔소마저 멸종 위기종이다. 이 이름마저 곧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

2) 이 이야기는 마자파힛 왕국의 역사서에는 나오지 않고, <Cerita Parahyangan>, <Pararaton Negara> 같은 순다 고전 서사 문학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3) 자야까르따는 나중에 네덜란드에 의해 바타비아로 바뀌었다가 인도네시아가 독립한 후 자야까르따의 이름을 따서 자카르타(Jakarta)로 도시 이름을 정하였다. 순다끌라빠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4) 양승윤, 인도네시아-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2017. p.105. 참조.

[한국에서의 슬기로운 팬데믹 생활]

5관5색 도서관에서 책캉스를

김재이(Sinarmas World Academy, G9)

종로구 '국악로'에 위치한 국악특화도서관 《우리소리도서관》

이름도 흥이 나는 《우리소리도서관》은 2017년 12월에 개관한 종로구 17번째 도서관이다. 국립국악원, 국립무형유산원, 국악방송, 한국국악협회, 국악음반박물관 등과 연계해 국악음원을 수집, 감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객들에게 제공한다. 잔잔하게 흐르는 국악을 들으며 책 읽는 기분을 어디에다 비하랴!

띵띠리 띵띠~ "우리 소리가 좋은 것이여!"

코로나 시대니 종알종알 얘기하고 싶은 어여쁜 입은 마스크 안에서 꾹 닫고 오감을 열어 국악의 향기를 느껴 봐!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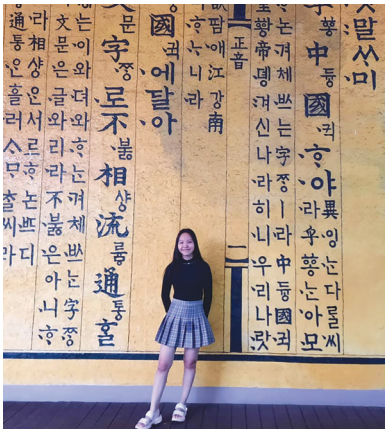
코엑스몰 중심에 총 2,800㎡ (약 850평) 복층으로 구성된 13m 높이 서가에는 7만 여권의 장서가 빼곡하다. 은은한 불빛이 공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는 '서가' 콘셉의 열린 도서관은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길까지 사로잡는다.

서초청소년도서관

창의력 가득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화 놀이터 《서초청소년도서관》은 서울특별시 서초동 한복판에 위치했다. '청소년' 이름을 당당하게 내건 만큼 청소년 도서 9천여권과 아동도서 1만8천여 권을 포함해 2만8천여권의 도서를 구비하고 청소년들을 기다린다. 과학소년, 수학동아, 어린이 과학동아, 논술 위즈키즈, 창비어린이, 자음과 모음, 문학동네 개똥이네 놀이터 등의 정기간행물이 빼곡히 전시된 1층에서 이미 발을 멈추게 될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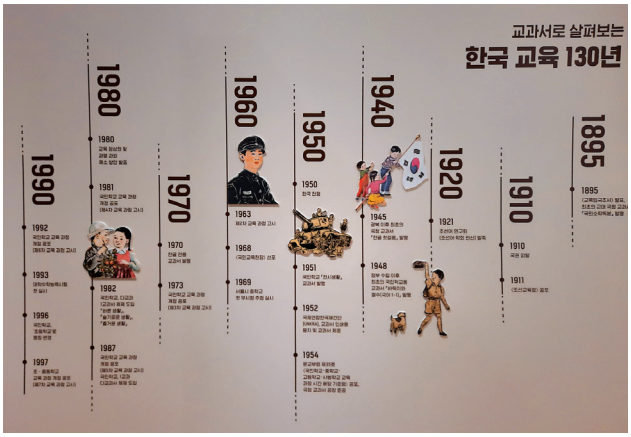
종로구 최초 한옥공공도서관《청운문학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은 종로구 16번째 도서관으로 독서와 사색, 휴식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개관한 만큼 건축자재부터 특별하다.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지붕 기와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수제 기와,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된 한옥 기와 3천여 장을 재사용해 의미를 더한다. 지척에 윤동주문학관과 시인의 언덕이 있어 책을 읽고 산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나처럼 한복을 입고 방문해 추억을 남기는 '용자'(용감한 자)가 되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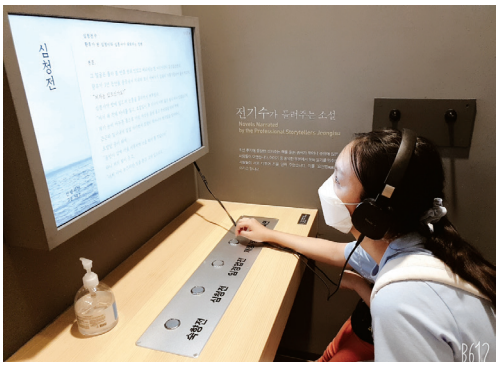
남산의 수려한 경관을 병풍처럼 두른《남산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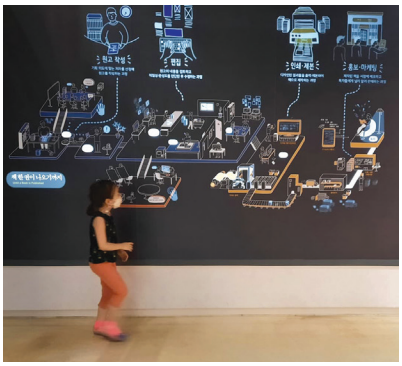
명동에 위치했던 경성부립도서관을 전신으로 1922년에 개관하여, 51만여권의 장서와 1만 7천여 점의 비도서자료, 800여종의 연속간행물을 소장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남산도서관》을 대표하는 독서치료프로그램은 책 읽기를 통해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주력한다. 인도네시아의 공공보육시설 아이들에게 K-pop댄스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는 나는 거대한 훈민정음 벽지 앞에서 춤추는 영상을 찍었다. 이토록 다양한 도서관의 쓰임에 엄지 척!



전국 최초 공립 책 박물관 《 송파책박물관 》

《송파책박물관》의 외벽은 독특하다. 책장을 열고 책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콘셉트로 디자인해 방문객들을 즐겁게 한다. 책장을 연다는 것은 세상의 문을 열고 작가와 독자가 소통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시공간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있는 자여, 《송파책박물관》으로 책 캉스를 떠나라!





▲ 자카르타 와양박물관 (사진 : 자카르타역사연구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와양박물관 Wayang Museum

자카르타역사연구팀장 조은아 (한인니문화연구원)

바타비아는 그리 크지 않았다.

'시내' 라 할 수 있는 지역은 성을 쌓고 해자로 둘러싸였던, 오늘날의 해양박물관(Museum Bahari) 부근의 어시장(Pasar ikan)을 포함한 아쎔까(Asemka) 지역에서부터 돌다리(Jembatan batu) 지역까지를 옛 도시라 할 수 있다.

1618년, 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기술자였던 사이먼 스테빈Simon Stevin은 옛 시가지의 정비계획을 VOC로부터 의뢰 받아 네덜란드와 닮은 '이상적인 도시' 를 지도에 그려냈다. 폭 약 900미터, 길이 1,300미터의 마을로, 찔리웅강(지금의 깔리 버사르,Kali Besar)이 그 중심에 흐르고 있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튼튼하게 쌓은 보루와 많은 문이 있는 벽들과 운하가 마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바타비아의 중심에 지금의 역사박물관인 시청이 있었다.

그 시청을 등지고 서 바라보면 양 날개처럼 자리한, 자카르타 역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와양박물관(Wayang Museum)과 미술·도자기박물관 (Museum of Fine Arts and Ceramics (Museum Seni Rupa dan Keramik)이 있다.

왼쪽 날개가 바로 와양박물관이다.

호화로웠던 점령자들의 교회

'Museum Wayang' 이라는 새 파란 간판이 새 하얀색 벽과 대비를 이루지 않았더라면 눈에 띄지도않을 만큼 허름한 이 건물이 사실, 가장 화려했던 바타비아 시대를 대변하는 건물이라면 믿을 수 있겠는가?

이 건물은 1640년 VOC가 바타비아에 주둔해 있는 네덜란드 군인들과 유럽인들을 위해 세운 De Oude Holandsche Kerk(Old Dutch Church)이라는 이름의 교회였다. 1732년에 수리를 하고 이름을 바꾸어 De Nieuw Holandsche Kerk(New Dutch Church)로 불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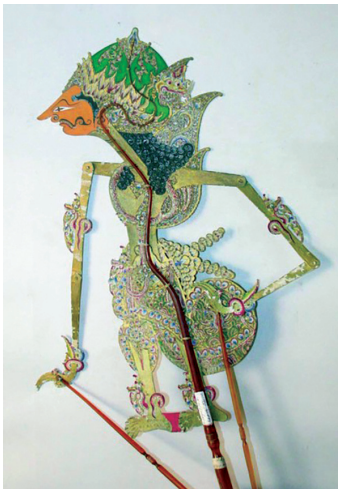
당시 교회는 바타비아에서 가장 높고 시청보다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이었다.
이 교회의 일요일 예배 또한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숙녀들에게 좋은 옷, 값비싼 보석 또는 하인의 수 등을 뽐낼 수 있는 기회기 때문이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모인 사람들의 혼합 사회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기에 성공한 이들은 그들의 부와 권력을 뽑내기 위한 장으로 사용했다. 교회의 개보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협찬금을 내며 자신들의 부를 과시했다.
때문에 예배는 본연의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당연히 설교자들에겐 불편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신앙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며 그들을 비난하고 때때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초기 교회의 모습 (사진 : Mitra Museum Jakarta)

초기 교회와 시청의 모습 (사진 : Mitra Museum Jakarta)

1808년 지진으로 교회는 무너졌고 당시 총독이던 디안델(Daendels)이 교회의 잔해들마저 허물어버렸다.
1912년 네오르네상스 스타일로 다시 건물을 지어 올렸고, 1934년에 이르러 Geo Wehry Company가 창고,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936년 8월 14일, 건물은 서있는 땅과 함께 문화유산이 되었다. 1937년 바타비안 예술 과학 협회(Bataviaasch Genootschap van Kunstenen Wetenschappen)가 구입하여 과학과 예술학 연구원으로 사용하면서 자카르타의 역사와 관련된 돌, 가구 및 그림 모음 등을 복원하고 보관하였다. 같은 해 건물을 Stichting oud Batavia 기관에 넘기면서 VOC의 사진, 가구, 돌을 전시하는 De oude Bataviasche Museum(Old Batavia Museum)으로 바뀌었다.
1938년에 세워진 뒤쪽 별관 건물들은 교회의 일부분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건물이 철거된 바닥에 새로 세워진 건물로 식민시대 네덜란드 가옥 모양으로 좁고 길게 지었다.
1939년 12월 22일에 총독 차르다 판 스타겐보르 스타추베르(Tjarda Van Starkenborch Stachouwer)가 박물관 'Oude Bataviasche Museum'으로 재개관하였다.
일본 침략기와 인도네시아 독립 혁명 시기에 이 박물관은 방치되었고 1957년 인도네시아 문화부가 이 건물을 관리하게 되면서 '오래된 자카르타 박물관(Museum Jakarta Lama)로 명칭이 바뀌었다.
1960년 8월, 자카르타박물관(Museum Jakarta)이 되었고 수차례 관리주체가 바뀌다가 1962년 9월 17일 인도네시아 '교육 관광부'가 관리하게 되면서 드디어 정부 관리하의 박물관이 되었

와양박물관 내부 (사진 : Museum Wayang 제공)



와양꿀릿

다가 1968년 6월 23일에는 자카르타 주정부가 맡으면서 박물관은 바로 앞 자카르타역사박물관(Museum Sejarah Jakarta)로 이전하였다.

1974년, 당시 자카르타 주지사 알리 사디낀(Ali Sadikin)은 바로 앞 시청 건물의 역사박물관으로의 정식 오픈을 앞두고 이 건물을 와양박물관으로 설립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와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위원회를 만들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그리고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수집된 4000여점의 와양 관련 전시물들과 함께 1975년 8월 13일, 알리 사디낀은 와양박물관 개관을 선포한다. 파란만장했던 이 교회는 그렇게 와양박물관으로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자바인들의 혼 '와양'

와양은 자바지역의 전통 인형극으로 달랑(Dalang)이라 불리는 변사가 그림막 뒤에서 인형을 조종하며 구술 형식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간다. 와양은 인형의 모양이나 형태, 이야기를 끌어가는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인형이 아닌 두루마리에 그려진 그림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와양 베버(Beber), 화려하게 옷을 입힌 나무 인형을 긴 나무 막대에 매달아 조종하는 와양 골렉(Golek), 동물의 가죽을 얇게 펴서 조각하고 색을 입혀 만든 와양 꿀릿(Kulit), 와양 골렉의 몸에 와양 꿀릿과 같은 형태의 얇은 나무판으로 얼굴을 조각해 정교하게 채색하고 관객 앞에서 직접 공연하는 와양 끌리띡(Klitik) 등이 있다. 또 사람이 직접 분장하고 연기하는 것을 와양 오랑(Wayang Orang)이라 한다.

바타비아가 있는 자바를 대표하는 와양은 '와양 꿀릿'의 그림자극이다.
하얀 스크린을 붙이고 그 뒷면에 램프를 비춘다. 스크린과 램프 사이의 와양 인형을 변사인 달랑이 여러 인형을 스크린 가까이에서 조종한다. 관객은 램프와 인형의 반대편에서 감상한다. 전통 음악인 가믈란 반주에 맞춰 인형을 움직이고 직접 효과음을 내며 스토리의 희로애락을 담아낸

다. 스크린에서 멀게 하면 그림자가 커지고 희미해진다. 지금은 전기 램프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코코넛 램프를 켜고 극을 진행했다.
아주 전통적인 와양 꿀릿 제작 방법은 염소나 물소가죽을 얇게 펴고 말려 만드는 데, 다 큰 염소 한 마리로 고작 2개의 와양만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이 마주하는 곳마다 구멍을 내어 연결해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그림자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검은 그림자로 이야기를 이끌어가지만 인형은 아주 다채로운 색으로 덧입혀져 있다. 원래 와양 공연은 조상의 영혼을 인형의 그림자에 머물게 해 섬기고, 현세의 귀신을 몰아내는 의식이었다고 한다. 그림자가 보이는 앞쪽의 흑백 그림자 와양은 현세의 모습을 뜻하고 스크린 뒷면에서 움직이는 화려한 색감의 와양은 내세를 뜻한다. 전설과 신화가 가득한 인도네시아에서 그 옛날 자바인들의 정서와 혼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아름다운 전통극이다.

와양박물관 중간 마당 벽을 가득 채운 얀 피터스존 쿤(Jan Pieterszoon Coen)의 비문

왜 하필 와양이었을까?
와양박물관의 본관에서 별관으로 이어지는 중간, 옛 교회의 마당에는 야외 무덤들이 있다. 왼편으로는 거기에 묻힌 9개의 네덜란드인 주지사들의 비문이 적혀있고, 오른편으로는 바타비아를 제2의 네덜란드로 세운, 악명 높은 얀 피터스존 쿤(Jan Pieterszoon Coen)의 무덤과 비문이 웅장하게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곳에는 쿤과 함께 네덜란드 총독 18명과 고위층 관리과 가족들의 돌무덤들도 자리하고 있다.

바타비아를 피로 건설한 쿤의 묘지가 자바인들의 혼이 깃든 와양박물관 안에 그대로 보존 중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다. 빛과 그림자, 삶과 죽음, 화려한 색채의 와양꿀릿과 빛 뒤에서 검게 보이는 와양꿀릿의 그림자, 화려했던 지배자들과 착취당했던 토착인들의 혼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와양박물관이다.
쿤은 아직도 그들의 영혼적 지배를 꿈꾸고 있을까. 와양 인형들이 열대의 네덜란드를 꿈꾸는 자들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감수 사공경
참고문헌 [자카르타 박물관 노트] 사공경(2005)
[Historical sites of Jakarta] A.Heuken SJ ,
[Jakarta sejarah 400 tahun] Susan Blackburn,
[Kehidupan Sosial di Batavia] Jean Gelman Taylor
Mitra Museum Jakarta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 배양육

조웅희(JIS 11, 학생기자)

'The World Counts'(환경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육류섭취량은 346만 톤이며 2030년에는 453만으로 44%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인류의 늘어나는 육류섭취량과 함께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은 물론 동물 윤리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대체육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 지고 있다.

대체육은 우리에게는 식물성 고기 또는 콩고기로 익숙하다. 대체육이란 단백질 등 전통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을 지닌 원료를 바탕으로 구현한 식품을 지칭하며 배양육, 식물성 고기, 식용곤충 등이 속한다. 처음 대체육이 논의되었을 때는 축산업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문제, 동물 복지와 윤리적 문제, 자원 고갈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체육 산업이 발전하였다. 이중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고기가 바로 '배양육'이다.

배양육의 생산과정은 우선 살아있는 동물에서 조직을 채취한 뒤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고 분리된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근세포로 배양, 6주간 성장시킨 후 근섬유 착색과 지방혼입 등을 통해서 제조된다. 이 과정중에 분리된 줄기세포가 형태를 가질수 있도록 구조체(scaffold)에 고정되어 배양되는데, 이 기술을 동물의 살코기 뿐만 아니라 마블링과 지방 등 동물의 부위 대부분을 제작할 수 있고 그 비율 또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맛과 식감도 거의 일반적인 고기와 흡사하다고도 한다. 게다가 줄기세포 구조체는 흔히 쓰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식용이 가능할 뿐더러 인체의 위해에 무방하다.

배양육을 본격적인 상업생산을 한다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배양육이 기존 축산업을 대체하게 되면 수십억마리의 가축을 도축하지 않아 동물 윤리 문제에서 나름 자유로워 진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가축은 전 세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15%를 배출한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에는 육류 섭취율이 44% 증가될전망이고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국과 네덜란드 과학자들에 의하면 "배양육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96%까지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사용량은 45%, 그리고 토지 사용 면적 또한 99%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연구진은 "현재로선 배양육으로 기존 축산 방식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류의 식량난과 에너지,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 문제를 해소하는 해결책중 하나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배양육 생산시 사용되는 배양액은 해조류를 이용하므로 광우병이나 구제역등의 가축전염병 발병위험을 배제할수 있으며, 쇠고기를 비롯해 돼지, 닭, 어류 배양육도 생산이 가능하다. 실험실에서 제조한 육류라 도살과정이 없으므로 종교적 제한식품으로 적용되지 않아 할랄 같은 종교기피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KAIST벤처기업에서 출발한 MBG연구소에서 선두적으로 배양육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양육은 대량생산기술을 확보하여 상용화하는 수준보다는 실험실에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 있다. 현재의 배양기술 수준으로 볼 때 세포배양은 높은 수준의 위생체계를 유지해야하며, 그에 따라 에너지 투입이 따를수 있기에 상용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최근 몇몇 국가의 경우 배양육 상용화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 한 예로 최근 싱가포르 식품청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배양육 개발업체 잇 저스트(Eat Just)에 배양육 닭고기의 생산과 판매를 허가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그동안 항생제 허용치 기준을 포함한 식품독성학, 생물정보학, 영양학, 역학, 공중보건정책, 식품과학 및 식품 기술 전문가 7명으로 패널을 구성해 배양육 치킨의 모든 제조 공정과 안전성을 평가하기도 하였으며, 잇 저스트의 경우 미국의 예는 항생제를 포함한 모든 제조 공정과 안전성을 평가할 제조기준과 위생 기준체계가 마련되었기에 가능하였다. 대한민국의 위생 기준 체계는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직배양과 대량생산기술을 위한 위생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배양육의 안전관리에 기반을 둔 연구 및 평가 지침 마련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실험실에서 배양한 세포의 기원별로 모든 공정에 대해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때 그 골목길은 지금도 있을까

최원현 / 수필가 (한국수필가 협회 이사장)
nulsaem@hanmail.net

여름이었다. 차에서 내리니 저만치 느티나무 당산나무가 먼저 한눈에 들어왔다. 저 나무를 돌아 지나가면 탱자나무 울타리의 골목길 첫 집이 이모님 댁이었다. 관사라고 하지만 슬레이트 지붕에 창문만 유리문일 뿐 여느 집과 별로 다름없는 시골집이었다. 그곳에서 이모님은 아들 셋을 낳아 기르셨고 유복녀까지 낳으신 터였다. 사립문을 밀고 들어서는데도 집안이 휑하다. "이모!" 하고 내가 목소리를 높여 불러도 안에선 아무 응답이 없다. 방문을 열었다. 이모가 벽을 쳐다보고 망부석처럼 앉아 있다. "이모!" 하고 다시 불러도 매양 그대로다. 신을 벗고 방에 들어가도 이모는 벽의 한 곳을 보고 있는 것인지 그냥 그러고 있는 것인지 초점 잃은 눈이 움직일 줄 모른다. "이모, 왜 그래?" 내가 이모를 붙들고 흔들자 그제야 나를 쳐다보는 눈이 조금 움직인다. "원현이냐? 왔냐?" 겨우 두 마디다. 그런 이모의 손을 내가 붙들자 이모의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런데 윗목에서 가냘픈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눈을 돌리니 작은 이불을 덮고 아기가 누워 있는데 얼굴이 벌겋다. 아이는 지쳤는지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있다. 유복녀였다. 아이를 가슴에 안아본다. 머리에 손을 대보니 열이 펄펄 끓는다. 섬뜩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 아이를 안고 버스 정류장께에 있는 이모부 친구의 약국으로 달려갔다.

외할머니께 이모한테 가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나를 붙드시곤 울음을 터트리셨다. "네 이숙 갔다!" "예? 어디로요?" "네 이숙 죽었단다." 나는 일순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의식했다. 할머니는 그런 나를 붙드시곤 이모부가 지난 추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과 아들만 셋인데 딸 하나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더니 유복녀를 낳았단다. 내가 충격을 받을까 봐 연락도 안 했었다는 것이다. 이모네 집으로 향하는 고샅은 여느 동네 동구 밖과 별로 다른 게 없었다. 다만 초입이어서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고 마을 앞 커다란 느티나무는 수백 년 수령은 됐음 직 크고 우람했기에 그 앞을 지나는 것만으로도 나는 위축이 되곤 했다. 그러나 여름에는 시원하기가 어디에도 비길 데가 없었으며 겨울엔 눈이 무섭게 내려도 느티나무 주위로는 큰 멍석자리처럼 눈이 쌓이지 않을 만큼 가지가 촘촘하고 튼실했다.

나는 이모네 집을 좋아했다. 늘 혼자 만이었던 내게 세 동생은 한없이 귀여운 존재였고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신 내게 이모와 이모부는 내 채워지잖는 어린 가슴의 한쪽을 채워주곤 했던 것 같다. 집으로 돌아갈쯤이면 이모부는 이모부대로 이모는 이모대로 내게 살짝 용돈을 주머니에 넣어주시곤 했는데 그때까지 내가 받은 용돈으론 가장 큰 액수이곤 했다.

그 겨울 나는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이종사촌 여동생을 내 품에 안고 동네 어른들을 따라 장례를 치렀다. 광주의 병원까지 갔으나 가는 도중 나를 한 번 쳐다보며 싱긋 웃고는 스르르 눈을 감아버렸다. 병원에 도착하니 숨이 멎은 지 20분이나 지나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다 했다. 그 애를 내가 가슴에 안고 가서 두어 뼘 남짓 넓이의 구덩이에 넣고 흙을 채웠었다. 그리고 이모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샅 그 골목을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세 동생을 데리고 즐겁기만 하던 골목이었다.

이모부가 오시나 몇 번씩 드나들던 골목이었다. 어느 날은 이모가 "느그 이숙 온다!" 해서 "어디?" 하니 "지금 당산나무께 오고 있다." 했다. 당산나무까진 한참이다. 그런데 거기 오고 있단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 거린데 말이다. 그런데 조금 있자 진짜로 이모부가 오셨다. 난 참으로 궁금했다. 어떻게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을텐데 이모부가 오는 걸 알았을까. "너도 장가가서 부부로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그게 이모의 답이었다.

내가 늘 오고 가며 노닐던 우리 집 고샅 골목길도 아닌데 왜 이모님네 골목길이 더 생각나는 걸까. 지금쯤 그곳은 어떻게 변했을까. 담양 가사문학관이 들어서서 이젠 그곳도 많이 변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움과 아쉬움 속에 그때 그곳이 마냥 그리워지는 것은 내 어린 날 가장 풍요로운 추억이 깃들어있던 곳이기도 하고 내 손으로 삶과 죽음이 나뉘는 걸 체험했던 곳이기도 해서일 것 같다. 그날 약국에 갔더니 빨리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에 바람처럼 이모네로 달리던 길, 이모와 함께 다시 그 길을 나와 발 동동 구르며 차를 기다리던 길, 방학 때면 찾아가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매미를 잡고 뭐가 그리도 바빴는지 쉴 새 없이 오가던 그 길들이 이제 아련한 추억 속에 묻혀버렸지만 지금 가면 찾아볼 수도 없을 곳임에도 내 기억 속엔 선히 떠오르는 길들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골목길은 참으로 운치가 있다. 지붕과 지붕이 닿을 듯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이웃집에서 무슨 음식을 해 먹는지 냄새만으로도 금방 알 수 있었고, 아이들 야단맞는 소리에 부부 싸움의 소리까지도 여과 없이 흘러나오는 길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런 정겨운 모습은 찾아볼 길 없고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는가 하면 주차 전쟁이 치열하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 관심조차 없는 현대의 골목길은 그저 생존경쟁만 있는 것 같다.

사랑하는 마음, 풋풋한 정을 나누는 따스한 손길도 도시화란 이름으로 사라져버린 지 오랜 지금엔 골목길이란 말만 들어도 그리움으로 가슴이 찡해온다. 그러나 세월이 가도 잊히지 않는 것이 있다.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옛날, 그 추억과 낭만과 삶이 범벅이 된 골목길의 추억을 다시 살려내어 그 냄새를 맡고 싶다. 50년도 더 지나버렸는데 이모님 댁의 그때 그 골목길은 얼마나 변해 있을까.

최원현 / 수필가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1951년 전남 나주 출생. 『한국수필』 수필(1987), 『조선문학』 문학평론(2008) 등단. 한국수필창작문예원장. 사)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월간 『한국수필』 발행인 겸 편집인. 한국수필문학상 · 동포문학상대상 · 현대수필문학상 · 구름카페문학상 · 조연현문학상 · 신곡문학상대상.펜문학상 수상 외, 수필집 《누름돌》 《문학에게 길을 묻다》 등 수필집 17권, 《창작과 비평의 수필 쓰기》 등 문학평론집 2권. 중학교 교과서 《국어1》 및 고등학교 《문학 상》, 중국 동북3성 《중학생 작문》 등과 여러 교재에 작품이 실려 있다.

[매경춘추 2021.08.18]

행복한 기업인

김우재 (사)세계한인무역협회 명예회장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코로나19 백신 부족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지금 국민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일상의 많은 부분이 '셧다운' 됐다. 이런 우울한 때에 기업인의 아름다운 휴머니즘이 발휘되기를 기대해본다.

해외 동포들은 현지인들과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며 살아간다. 나라에 따라 다소 문화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인간 본연의 아름다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의 표현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업장과 이웃,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가질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외국에서 사업할 때 현지에서 얻은 수익금 일부는 지역 사회에 환원한다는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신념이 널리 알려지면 공동체가 나서 도움을 주기도 한다.

1998년 필자가 살고 있는 자카르타에서 폭동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현지 주민들은 한국인 교포들의 지역 봉사활동을 높이 평가해 자발적으로 도움을 줬다. 현지 군인들이 나서 경비를 서주고 교민을 공항까지 대피시키기도 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길'이라는 격언을 그때 실감했다.

기업은 돈 버는 것이 존재 이유이지만 현지인들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기업인이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많이 봤다. 사업이 성공한 다음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은 한 박자 늦은 것이고, 막상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도 실천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는 인생 철학과 관련된 문제인데 하루아침에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또 봉사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젊은 시절을 자기만 생각하고 보내다 노년에 들어서야 자화상을 그리려고 한들 그 그림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는 어렵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성공하고 마음 씀씀이도 넉넉한 기업인은 대체로 인생 말년이 평화롭다. 그런 기업인을 주변에서 많이 봤다.

노년의 행복 열쇠는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인데 살아온 방식이 그 열쇠의 색깔과 크기를 결정한다고 하겠다.

자화자찬처럼 들릴까 주저되지만 과거 한국 방송에서 방영한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다큐멘터리에 필자가 출연한 적이 있다. 현지인 나환자재활원 수녀님께서 나를 보고 "당신이 바로 천사"라고 말하는 것이 전파를 탔는데 너무 과분한 찬사라 몸 둘 바를 몰랐다. 더 큰 봉사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 후로도 나름 열심히 살려고 애썼다.
칠십을 훌쩍 넘은 지금도 나는 여전히 모국과 이웃에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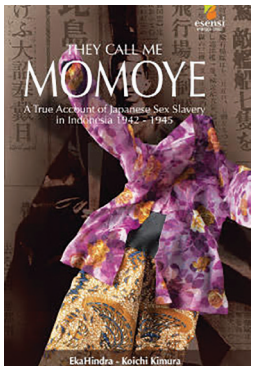
《한인니문화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와 협약식 체결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은 인도네시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서적의 번역과 발간(21.12월 예정)을 계기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8월 13일(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정서에서 《한인니문화연구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은 국내외 '위안부' 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반을 조성을 목적으로 국내 및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일본군 위안부 관련 출판물 · 자료 및 학술정보 교환하고 연구자의 상호 교류와 자료의 수집 · 열람 · 복사에 관해 협력하며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공동 자료조사 및 정보 수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공동 연구 및 학술대회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사공경 원장은 협약식에서 "기억을 불러내어 역사를 쓰고, 그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위안부들의 아픔이 서린 현장을 찾아,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고, 기록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와의 협약식은 역사의 미래를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억' 하고 '기록' 하여 위안부의 아픔이 인류애로 세계인들의 심장을 꿰뚫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협약식이 전쟁의 고통과 여성의 피해가 인권과 평화 문제로 자각되어야 한다는 역사의 진보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밝혔다.

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박봉정숙 원장, 우) 《한인니문화연구원》 사공경 원장



인도네시아 위안부 문제 연구자 에카 힌드라티(Eka Hindrati)가 인도네시아 위안부 여성을 인터뷰해 집필한 전기 『그들은 나를 '모모예' 라고 불렀다』 (Momoye Mereka Memanggilku) 해당 저서의 한국어 번역을 맡은 김영수 번역가(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전공)는 쁘라무디야 아난따 뚜르의 『인도네시아의 '위안부' 이야기』를 한인니문화연구원의 출판권 약정 협력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이력이 있다. 2020년 8월에는 인도네시아 '위안부' 문제의 배경과 현황을 주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위안부' 가 된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공감대 향상을 위해 국내 피해자 증언집의 영문 번역서 출간 지원과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피해자 증언집 국문 제작도 주도하고 있다.

앞서 《한인니문화연구원》은 2010년 7월 김홍구 총장, 해외취업센터단(센터장 김예겸교수)과 사전 미팅을 통해 2011년 1월 25일 부산외국어대학교(해외취업센터/청해진사업단)와 상호 교류 협정서를 체결, 부산외대 학생들이 현지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제공: 한인니문화연구원)

연재

개정 근로기준법(9)

(전호에서 계속)

9.18. Rupiah로 지불 의무

임금은 반드시 Rupiah로 지불해야하며 임금 지불 시 임금 명세를 알려줘야 한다.

9.19. 임금 지불 기간 단위

일 단위,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지불할 수 있으며 월 단위 이상 지불은 금한다.

9.20. 임금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에서 벌금, 손해배상, 임금 감액, 가불금, 회사 소유 주택 혹은 기구 임차비, 채무 혹은 채무분할금, 임금 과불을 공제할 수 있다.

9.21. 벌금 부과 규정 제정 가능
9.21.1.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회사 혹은 근로자의 고의 혹은 과실에 대하여 벌금 규정을 둘 수 있다.
9.21.2. 회사 혹은 근로자가 지불한 벌금은 회사를 위해서는 시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복리후생에만 사용해야한다.

9.22. 임금 체불에 대한 벌금 지불 의무

9.22.1. 체불 4일째 날부터 8일째 날까지는 매일 체불 임금액의 5%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9.22.2. 체불 8일째 날 이후는 매일 체불 임금액의 1%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나 월 합계 최고 50%를 벌금의 상한선으로 한다.
9.22.3. 체불 1달 이후는 위 22.1.항 및 22.2.항의 벌금과 국영은행 최고 이자율을 적용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9.23. 종교상여금 지불 지연에 대한 벌금

종교상여금 지불 시한까지(*종교 명절 1주일 전) 종교상여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종교상여금액의 5%의 벌금을 더해서 종교상여금을 지불해야 한다.

9.24. 퇴직금 및 장기근속금 계산 기준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본봉 및 매월 고정으로 지불하는 고정수당을 합한 총액으로 퇴직금 및 장기근속금을 계산해야 한다.

9.25. 근로소득세 부담

9.25.1.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규정한대로 근로자 혹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9.25.2.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 근로소득세 부담자를 규정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한다.

9.26.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국가 임금위원회와 주 임금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시/군 임금위원회를 둘 수 있다.

9.26.1. 국가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Nasional)
9.26.1.1. 대통령이 설치한다.
9.26.1.2. 임금 정책 및 임금 제도 발전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한다.
9.26.1.3. 위원회는 정부 대표, 기업 단체 대표, 노조 대표, 학자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정부 대표는 자동으로 특정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된다.

9.26.1.4. 임금위원회는 정부 대표와 기업 단체 대표와 노조 대표가 2:1:1의 비율로 구성하며, 학자 와 전문가 수는 필요에 따라 정한다.
9.26.1.5. 임금위원회 조직
9.26.1.5.1. 의장 : 노동 분야 정부 대표. 위원 겸직
9.26.1.5.2. 부의장 2명 노조 대표 1명, 기업 단체 대표 1명, 위원 겸직
9.26.1.5.3. 서기 1명 : 노동 분야 정부 대표 1명, 위원 겸직
9.26.1.5.4. 위원 정원은 홀수이어야 한다.
9.26.1.5.5. 국가임금위원회 사무처는 노동부장관이 설치한다.
9.26.1.5.6. 국가임금위원회의 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9.26.1.5.7. 임금위원회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9.26.1.6. 국가임금위원의 자격
9.26.1.6.1. 인도네시아 국민
9.26.1.6.2. 최소 학사 학위 보유자(S-I)
9.26.1.6.3. 임금 분야 및 인력 개발 경험 및 지식 보유자
9.26.1.7. 임금 위원의 임기
9.26.1.7.1. 기업 단체 대표 및 노조 대표 : 3년 임기에 1차에 한에 연임 혹은 중임 가능
9.26.1.7.2. 학자 및 전문가 대표 : 3년 임기에 2차에 한에 연임 혹은 중임 가능
9.26.1.7.3. 위원직 상실 사유 : 사임, 연속 3개월 직무 불수행, 유죄 확정 판결, 임금위원회 내규 위반, 관련 단체의 교체 요청 시

9.26.2. 주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Propinsi)
9.26.2.1. 주지사가 설치한다.
9.26.2.2. 기타 사항은 국가임금위원회와 대동소이하며 국가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위치는 주지사가 대신하고 노동부장관의 위치는 주청 노동국장이 대신한다.

9.26.3. 시/군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Kota/Kabupaten)
9.26.3.1. 시장/군수가 설치한다.
9.26.3.2. 기타 사항은 국가임금위원회와 대동소이하며 국가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위치는 시장/군수가 대신하며 노동부장관의 위치를 시청/군청 노동국장이 대신한다.
9.26.3.3. 시/군 임금위원회의 위원 자격 학력은 전문대졸업자(D-III)이다.

9.27. 임금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9.27.1. 행정처벌 대상
9.27.1.1.종교상여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9.27.1.2. 늦게(7일 전 이후) 지불한 경우,
9.27.1.3. 서비스차지를 직원 복리후생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9.27.1.4. 임금 구조 및 체계(임금 규정)를 만들지 않은 경우,
9.27.1.5. 임금 규정을 전체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9.27.1.6.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9.27.2. 행정 처벌
서면 경고, 조업 제한, 일부 혹은 전체 생산설비 가동 임시 중지 혹은 조업 중지 명령

(다음 호에 계속)

원만한 사람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 한강, 『채식주의자』 중

글: 홍석영 편집장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하면 내 속이 편할 건지에 기본값을 정한다. 입이 당겨하는 것보다 소화가 잘되는 것과 뒤탈이 없는 음식을 먹는 것도 스스로를 힘들게 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함이다. 어릴 때는 편식 때문에 원만하지 못했고 지금은 소화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원만하지 못하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점심 도시락을 시켜서 먹곤 한다. 포장을 뜯고 내가 메뉴를 고를 때 상상하던 그 맛인가? 를 확인하기까지 긴 시간이 흐른다. 일회용 각종 양념용기를 꺼내고 비닐, 랩, 테이프까지 제거하고 나면 정말 시장하다. 먹고 나면 배달 왔을 때의 가장 큰 비닐에 많은 쓰레기가 담긴다. 어쩌냐.....
나로부터 생성되는 쓰레기가 적지 않다.

'배양육' 에 대한 학생기자의 기사를 읽고 10년 전쯤에 읽었던 『죽음의 밥상』(피터싱어&짐 메이슨, The Ethics of what we eat)이란 책이 떠올랐다. 고기로 태어난 동물, 소, 돼지, 닭 등의 기본권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게 한 책이었다. 전기 충격기로 기절시킨 후 목이 잘리는 것이 동물 윤리에 적합하다는 식이었다.
그들의 죽음은 기정사실화 하면서 죽는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나 살아있는 동안의 그들의 환경을 돌아봐야한다는 주장이 부조리하다고 느꼈다. 그들의 수명이란 우리의 알 바가 아닌 것이다.

나고 살고 죽음이 어디하나 자신의 뜻이라고는 없는데 동물의 이익이라 하더라도 존중해야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 듯하지만 어디부터 어떻게...?

닭의 예를 들면 감별사에 의해 수평아리로 판명되는 즉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며, 닭들끼리 스트레스로 인한 공격성으로 서로를 상처내지 않도록 병아리일 때 부리끝이 잘린다. 많은 알을 낳도록 인공조명으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

저녁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고기가 살아 있는 동물이었을 때 어떤 일을 겪었을까? 비용만을 생각하는 공장식 농장에서 식료품 가게 선반에 산뜻하게 놓일 때까지의 과정은 불결하고, 비윤리적이고, 종종 잔혹하고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환경파괴의 차원에서 소의 예를 보면, 그것을 사육하는 방식 자체도 잔인하지만, 소고기 1파운드를 얻기 위해 소비해야하는 엄청난 물의 양, 풀을 먹는 소에게 먹이는 곡물, 그 배설물로 인해 오염되는 하천, 황폐해지는 토지, 농장을 짓기 위해 벌목되는 숲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 사람이 지구에 살다 가면서 파괴하는 환경에는 다행히 너그럽다.
환경에 신경을 쓰며 사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도 자꾸 늘어나는 확진자 소식과 마찬가지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로 무기력증에 시달린다. 코로나 역시 환경문제에 소홀해서 터질 게 터진 인재라는 시각도 있다.
몸이 편한 대로 길이 나있는 대로 움직인다면 환경은 급속도로 나빠질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식음료 매장의 일회용품 배출량이 급증했다. 일회용품을 이용한 포장 판매가 아니면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플라스틱 없는 삶, ‘플라스틱 프리’를 외치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비행기나 배로, 많은 연료를 태우며 내게 도착하는 식품보다 생산지가 가까운 것을 먹어야한다.
재활용을 하고 장바구니를 쓰고 세수할 때 물을 틀어 놓지 않고, 포장이 깨끗한 것보다 투박한 것을 사고, 현지에서 나는 것을 먹고 쓰고,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해야한다. 머리로는 그러려고 한다.

나는 지금 한인마트에 잘 익은 상태 좋은 복숭아가 한국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COVID-19 의료구호 관련 기부금품 현황

기부금

NO.	일자	성명	단체명 / 기업명	금액	
				USD	IDR
1	2021-07-12	전명현	외식업협의회		20,000,000
2	2021-07-14	장윤하	중소기업협의회(KOSA)		100,000,000
3	2021-07-14	김종헌	월드옥타자카르타지회		20,000,000
4	2021-07-14	김우진	SAMINDO ELECTRONICS		100,000,000
5	2021-07-15	박길용	HAN YOUNG INDONESIA		20,000,000
6	2021-07-15	이종윤	신발협의회(KOFA)		50,000,000
7	2021-07-15	김종헌	무궁화유통		20,000,000
8	2021-07-15	이지완	JIN YOUNG		10,000,000
9	2021-07-16		대감집		10,000,000
10	2021-07-16		SKY FOAM		10,000,000
11	2021-07-16	이기홍	한인건설협의회(AKCI)		30,000,000
12	2021-07-16		ZINUS GLOBAL INDONESIA		100,000,000
13	2021-07-16	박재한	JAVA PALACE HOTEL		100,000,000
14	2021-07-16		이직수	295	
15	2021-07-17	안창섭	봉제협의회(KOGA)		50,000,000
16	2021-07-20	신현만			5,000,000
17	2021-07-20	고정윤			10,000,000
18	2021-07-21	이지선			500,000
19	2021-07-21		하나은행		1,000,000,000
20	2021-07-21	강호성	ACMI		30,000,000
21	2021-07-22	신동수	MITRA INDONESIA		50,000,000
22	2021-07-22	박우용			500,000
23	2021-07-22	NO NAME			500,000
24	2021-07-22	NO NAME			1,000,000
25	2021-07-22	송종미			500,000
26	2021-07-22		TK INDUSTRIAL INDONESIA		100,000,000
27	2021-07-22	최순규	경상북도 자카르타사무소		2,000,000
28	2021-07-23		POSCO GROUP		200,000,000
29	2021-07-23		FEEL BUY INDONESIA		20,000,000
30	2021-07-23		미래에셋증권		30,000,000
31	2021-07-24	강현주			1,000,000
32	2021-07-25	민현기	MIN GOOK		10,000,000
33	2021-07-25	박창희	KHRIS EXOTIC BAG		5,000,000
34	2021-07-26	서영율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이사		50,000,000
35	2021-07-26	이종윤	SINAR MASANDA INDUSTRI		10,000,000
36	2021-07-26		ACE건설(ACE E&C)		20,000,000

37	2021-07-27	박영진			3,000,000
38	2021-07-27		PARKLAND WORLD INDONESIA		50,000,000
39	2021-07-27		SAMINDO RESOURCES		100,000,000
40	2021-07-28		KB BUKOPIN	26,056	
41	2021-07-28	강윤석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이사		10,000,000
42	2021-07-31		우리소다라은행		200,000,000
43	2021-07-31		김대영		2,000,000
44	2021-08-02		IBK은행		100,000,000
45	2021-08-02	서영율	PRATAMA ABADI INDUSTRI		1,000,000,000
46	2021-08-05	이호덕	ROYAL SUMATRA GROUP		100,000,000
47	2021-08-20	이지선			500,000
계				US$ 26,351.00	Rp3,751,500,000
합계			*US$1=RP14,400		Rp4,130,954,400

기부품

NO.	일자	성명	단체명 / 기업명	물품내역	수량
1	2021-07-12		주인니대한민국대사관	산소발생기(누보라이트)	5대
2	2021-07-12		HYUNDAI MOTOR MANUFACTURING	산소발생기(누보라이트)	7대
3	2021-07-12		TUNAS SAWAERMA(코린도)	산소발생기(누보라이트)	6대
4	2021-07-12	여둘금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	산소발생기(누보라이트)	5대
5	2021-07-12	김육찬	GARUDA TWIN JAYA	산소발생기(누보라이트)	2대
6	2021-07-12		LX 인터내셔널	산소발생기	10대
7	2021-07-12		FLYING DOCTORS KOREA(비즈인사이트)	산소발생기(에버플로)	15대
8	2021-07-12	김인기	INDOCORE PERKASA	산소포화도 측정기(옥시미터)	200개
9	2021-07-15	이원형	HASTA PUSAKA SENTOSA	산소포화도 측정기(옥시미터)	100개
10	2021-07-15	박용호	WELLS PRIMA GLOBLA	알콜티슈	10박스
11	2021-07-16		대웅제약	타미빅트	64,000정
12	2021-07-16		대웅제약	호이스타	86,000정
13	2021-07-19	양태화	BOSUNG INDONESIA	구급키트 나눔 쇼핑백	500매
14	2021-07-19	양재영	C&H	소독제	300개
15	2021-07-30		동아제약	판피린티	15,000정
16	2021-08-06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산소발생기	2대
17	2021-08-06		SERIM INDONESIA	KF94 마스크	2,000장
계				17건	

2021 임원찬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21.1.28. ~ 8.26.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000	
2	명예고문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JAYA	5,000	
3	명예고문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5,000	
4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5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5,000	
6	고문	최덕열	PT. SHINTA WOOSUNG	5,000	2020
7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8	부회장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10,000	2020-2021
9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10	부회장	승범수	PT. KORINDO GROUP	5,000	
11	부회장	이정휴	PT.GEE SAN INDONESIA	5,000	
12	부회장	이종남	PT. SINYOUNG ABADI	5,000	
13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5,000	
14	부회장	황규순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5,000	
15	부회장	하재수	PT. ROYAL PUSPITA	5,000	
16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	
17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18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19	자문위원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	1,000	
20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21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22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1,000	
23	자문위원	이승민	YSM & PARTNERS	1,000	
24	자문위원	이종현	PT. LEO KORINSIA	1,000	
25	자문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1,000	
26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1,000	
27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28	이사	강윤석	PT. PLATECH MOLD INDONESIA	1,000	
29	이사	길병완	PT. DAEYONG DUNIA SUBUR	1,000	
30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000	
31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 WOORI TOUR	1,000	2020
32	이사	김인기	PT. INDOCORE PERKASA	1,000	
33	이사	김일태	PT. OROM	1,000	
34	이사	김종화	PT. ART MOLD INDONESIA	1,000	
35	이사	김종희	PT. YOUNG JIN INDONESIA	1,000	2020
36	이사	김호권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000	
37	이사	김희중	PT. JKI CONSULTING	1,000	
38	이사	노태진	PT. SILLA ENGINEERING INDONESIA	1,000	
39	이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40	이사	백인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41	이사	서영률	PT. PRATAMA ABADI INDUSTRI	1,000	
42	이사	송판원	PT. KORYE POLIMER	2,000	2020-2021
43	이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JAYA	1,000	
44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45	이사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1,000	
46	이사	유용선	PT. DAE HWA INDONESIA	1,000	
47	이사	이강현	PT. HYUNDAI MOTOR MANUFACTURING INDONESIA	1,000	2020
48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49	이사	이완주	PT. PERTIWI INDO MAS	1,000	
50	이사	이한주	PT. SAJI SEGAR LESTARI	1,000	2020-2021
51	이사	이희경	PT. PRIME FREIGHT INDONESIA	1,000	2020
52	이사	장수봉	PT. YOUME INDONESIA	1,000	2020
53	이사	장영관	PT. SURYA MOLD TECH	1,000	
54	이사	장윤하	PT. HARINDO	1,000	2020
55	이사	정제의	PT. SINERGI SUKSES INDONESIA	1,000	2020
56	이사	정창섭	PT. DAEWOO LOGISTICS ASIA	1,000	
57		no name		1,000	

2021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기준 : 납입일순

번호	성 명	금액 (IDR)	납입 연도
122	최선명	300,000	
123	황선	600,000	2021-2022
124	오인태	300,000	
125	최상직	1,200,000	
126	이상복	300,000	
127	김혜아	300,000	
128	류완수	300,000	
129	문해정	300,000	
130	허성부	300,000	
131	박재한	300,000	
132	황규순	300,000	
133	정명일	300,000	
134	엄순금	300,000	
135	홍성민	300,000	
136	홍준기	300,000	
137	김희진	300,000	
138	허길	300,000	
139	최상직	1,200,000	

[한인회 회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2020년 연로하고 병든 불법체류자 A씨의 귀국을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쉐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현재 2021. 6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1361-472 1735]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총무	최 경 희	0812-3806-288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영사협력원	이 태 우	0812-3793-9452
		영사협력원	김 갑 수	0811-3945-52
2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박 병 봉	0813-2150-5500
		사무차장	윤 병 렬	0811-210-4622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수석부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수석총무	조 웅 기	0812-4666-5907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수석부회장	김 화 룡	0816-807-681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수석총무	이 승 현	0811-9780-28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김 신	0812-2991-58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수석부회장	이 옥 근	0815-7500-8170
11	땅그랑반뜬한인회 [0821-8166-6137]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3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14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정 성 화	0821-5497-9998
		수석부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배 성 운	0813-7180-6330

협력하는 한인사회

함께라면 COVID-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人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 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TL ax ow 세무회계

세무상담은 택스로
세무사/AFPK자격인증자 이희영
대한민국세무관련조력/비거주자,
거주자판단자문 등
대한민국세무상담 환영

·주요업무·
세무조사전문
조세불복전문
기장신고대리
양도상속증여
세무컨설팅

·주요경력 (국세청 17년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근무
강서세무서,영등포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조사과, 법인세과,재산세과 등 근무

(07807)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747타워 602호(마곡역 6번 출구)
T +82-2-2662-7476
F +82-2-2664-7473
M +82-10-6599-7476
E taxlow7476@naver.com

어떤 모양을 통해
목적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 아닐까요?
디자인이라면 뭐든지 해결해드립니다!

PT.EOK ECO INDONESIA

인 테 리 어
익 스 테 리 어
경 관 조 명
간 판

- 디자인/설계/제작/시공 -
Tel. 021-7919-2426
M. 0852-8511-3888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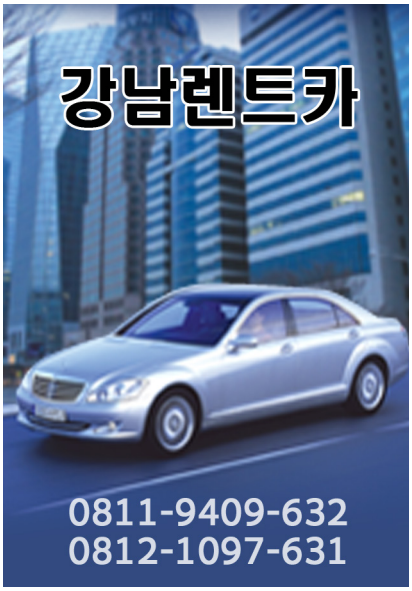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복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오롬컨설팅
PT.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visa.oromchris@gmail.com (021) 2245 5879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숭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혜광고(서동히)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군)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죠지언 퍼니쳐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쟈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365OPEN CLINIC 위자야 점	2793 2625
끌라빠가딩점	2245 8015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뽄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끌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둥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뿔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땀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94 4338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효(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9593111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콥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컨설팅

오름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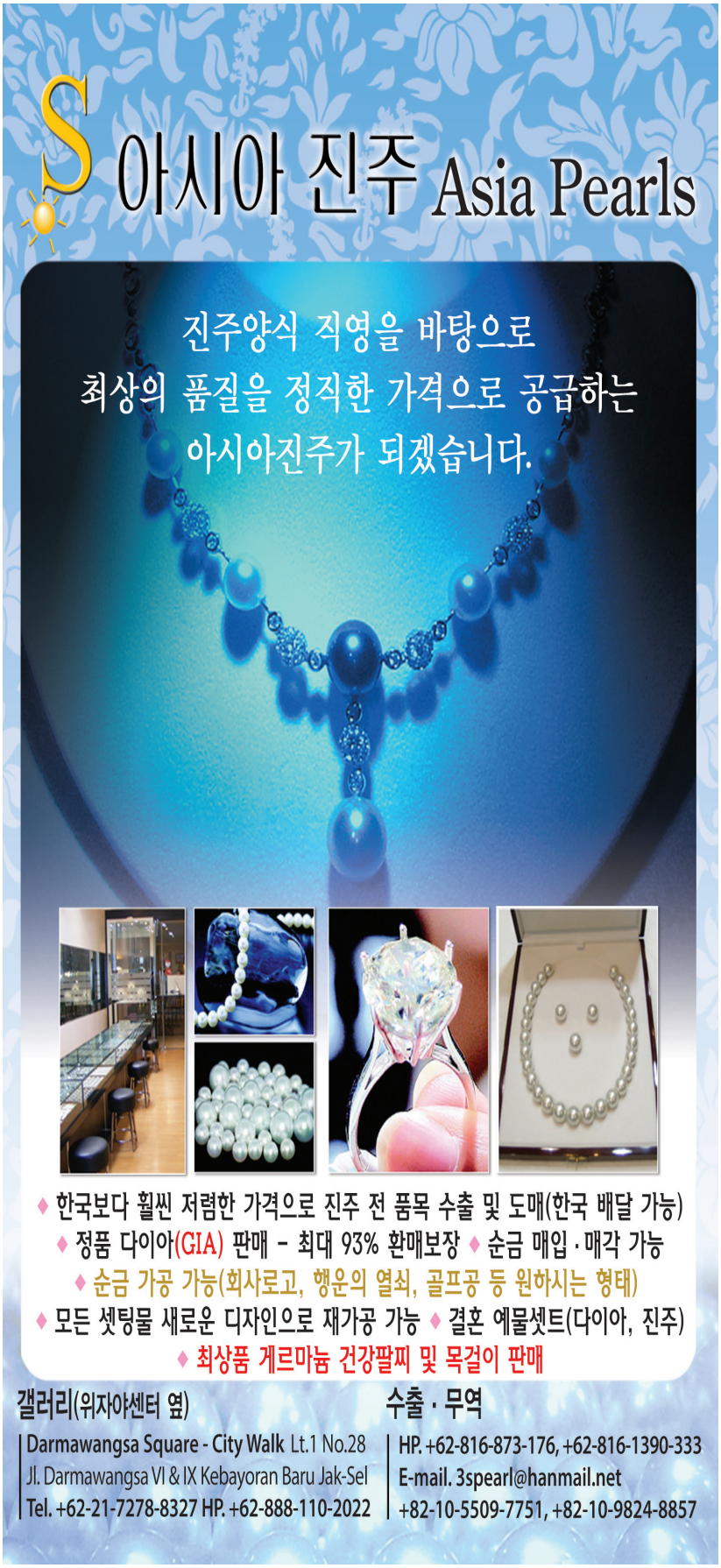
경복궁하숙(리뽀찌까랑)	0813 1415 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둥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져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쎄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날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당분간발리한인회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발리 한인회 주소>
Jl. Kutat Lestari Gg. 6 No. 2A, Sanur,
Kecamatan Denpasar Selatan
Kota Denpasar Bali 80227
사무실 전화 번호 0361 472 1735
한인회 사무국장/영사협력원
이태우 0812 3793 9452

BE
THE FIRST
MOVER
H-T-M
KMK GROUP

SAMSUNG

BESPOKE

Designed for you, by you

Personalize your favourite colour into your fridge

FREE Panel Customization for 100 customers*

worth up to **8Mio**

&

FREE
Nespresso Coffee Machine*
worth **2.199K**

Period: 25 Aug - 7 Sep 2021

Only at:
Samsung.com/id

*Terms and Conditions apply

Customer Service: 0800-112-8888 (bebas pulsa)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 | Samsung Indonesia | SamsungID | SamsungIndonesia | Samsung Indonesia